



# 時計塔

SIGETOP



2006년 7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3권 3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趙東峻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宋寬鎬

## 취임사

### 동창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매진

신임회장 조동준(64)



"한손에 막대 잡고, 다른 손엔 가시 쥐고, 늪을 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고려 말기에 어느 시인이 한 말 인용해 보았습니다.

육십대에는 세월이 육십마일로 달린 다더니, 지금 느끼기에는, 속도를 전혀 조절할 수 없는 백마일로 달리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4년도 졸업생으로 천사의 땅, 로스앤젤스에서 은퇴해서 살고 있는 신임 회장입니다. 이제 미국에 온지도 내년이면 40년, 미주동창회 나이와 비슷합니다. 처음 15년은 뉴욕시 및 근처 동부에서 살다, 25년전 서부로 옮겼습니다. 금년에는 동창회 회장의 중책까지 맡았으니 1,200 선후배 동창 그리고 배우자 및 가족들과 함께 좀더 뜻있는 해를 보내야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1973년 뉴욕에서 이광수 선배님 중심으로 미주동창회가 창립된 후 그동안 변화도 많았지만 이제는 회원의 1/3이 의학을 떠나서, 은퇴생활로 들어갔으며, 다른 1/3은 은퇴생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국에서의 젊은 회원은 끊어진지 오래이니, 그동안의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낯설고 언어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그동안 무척이나 열심히 일하며 앞만 보고 살아온 인생에 무슨 대가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 회원은 미국 넓은 땅 50개 주에 흩어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면에서 동질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과대학 6년을 같은 대학에서 보냈으며, 미국에서의 의사수련 그리고 의사라는 같은 직업으로 평생 미국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선후배 동창 여러분은 물론이지만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배우자 및 가족에게 저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저는 작년 동창회 학회에서 가끔씩 생각이 나며, 보고싶었던 서울의대 동창생 선후배 세 사람을 40년만에 만났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말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동안의 긴 세월 속에서 만든 우리들의 추억도 무수히 많을것 같습니다. 가끔 만나서 추억도 이야기하며 살아가면 안될까요?

금년부터 뉴욕에 있던 동창회 사무실이 부족한 재정사정으로 폐쇄되고 동창회 사무를 김해경 씨 자택에서 보게되었다 합니다. 지난 수년동안 반도

되지않는 회원의 회비로서 지탱해온 동창회였다 하니, 발전을 기대하기는 고사하고, 무척 힘들어 했을 것은 짐작이 쉽게 갑니다. 과거 회장단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각 회원의 후원과 봉사로서 운영되어가는 것이 동창회인데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원이 할 것이라는 무관심이 문제라는 것을 모두 감지해야했습니다. 회장으로서 여러가지로 새로이 할일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회비수급 하는 일과 동창회 재활성화하는 일이 저의 일일 것 같습니다.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회비도 보내주시고, 기부금도 내주시는 동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동창회의 얼굴인 시계탑은,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동창들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매체이니, 전 동참이 힘을 합쳐서 다듬어 가야 할 신문입니다.

우리는 이땅의 Korean-American Community의 개척자로서 이세들에게 씨앗같은 역할을 했으며, 오늘의 빛나는 조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며, 또 이제는 진정 좀 더 질이좋은 삶을 누릴 자격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세들도 이 땅에 태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 문헌 준비도 해야 하겠습니다. 꿈의 땅인 캘리포니아는 은퇴해서 사는 곳으로, 최적한 곳이니 은퇴지로 한번은 고려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쾌적한 기후, 풍부한 한국문화, 개방적인 분위기 등등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내년 이월 로스앤젤스에서 있을 동창회 학회에는 한국에 사는 동창들도 초대해서 서울과 미국동창이 같이하는 축제의 자리를 만들까 합니다. 끝으로 금년에는 "Discover West America" (Colorado, California, Nevada, Arizona and Alaska) 프로그램의 하나로 팔월말 "기차로 떠나는 Colorado 여행"을 소개하며 또 시월에는 고국방문을 소개할 예정이며, 둘째로 은퇴생활 프로그램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살아 움직이는 동창회로써 동창간 친목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구촌 시대의 빠른 변화에 맞추어, 변화를 받아드리는 용기와 지혜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좋은 생각을 보내주시다면 밝은 한해가 우리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모든 동창 가정엔 행운이 깃들기를 빕니다.

- 항상 오픈되어 있는 이메일과 전화로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동문들의 고견을 들기를 원합니다.

E-mail: jfamily1@cox.net  
Tel: (310) 544-01019

## 이임사

### 동문 여러분과 영원히 건재할 우리 동창회

회장 최준희(64)



친애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기 동문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 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겨 주시고, 또

열심히 동창회를 위해서 동문서주 해보겠다고 약속 드리고 일을 시작 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그 책임을 미완성으로 끝내면서 다음 신임 회장 조동준 동문께 바톤을 넘겨주게 되었다니 유수와 같은 세월의 빠른 재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당황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일 년을 요약하라면 아마 'bittersweet'라고 표현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답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저를 도와 협조 해주신 회장단, 위원회 회장 및 회원님들 또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contributor 께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황송하기만 합니다.

제 생애에서는 잊지 못할 working relationship을 가졌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특히 일선에서 은퇴한 저에게는 제2의 stressful job으로 지난 일 년 동안에 큰 행사도 많이 있었지만 새 주소록 발간 및 새 웹사이트의 개설이 우리동창회의 사업 중 특기할 만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monthly meeting에서의 서인석(73) 총무의 조리있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 등 아마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2005년 11월 18일에 있는 Annual Ball을 각 학년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 성황리에 마친 것과 2006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개최되었던 하계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결실은 모두 여러 선후배 동문님들, 저의 동기들과 가족들의 "나의 동창회"라는

적극적인 참여의 덕택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미주 동창회라는 큰 선박은 아틀란틱 시티(뉴저지)를 출발하여 로스앤젤스로 향합니다. 새로 취임한 선장 회장 조동준 동문의 지휘아래 순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문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편달을 부탁 드리고 저 또한 지난 일 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협조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동창회를 위하여 희생적인 협조를 해주신 함춘회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Katrina Disaster 때 헌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회장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간절히 요청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동문들의 참여가 빈약하면 동창회의 지속적인 기능이 위험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동문들의 계속적인 더 많은 참여와 협조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난 일 년 동안 동창회를 위해서 저와 함께 일해 주신 총무 서인석(73), 분골세신 일해 주신 저의 동기인 하계학술대회 위원장 권정덕(64), 멋지고 청신한 맛을 풍기는 Scientific Session을 이끌어 주신 위원장 최영자(66)동문, 재무를 맡아주신 심인보(83)동문, 예의 없이 언제나 동창회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주신 본부 사무장 김해경 여사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 한국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창회장 하권익(63) 선배님과 왕규창(79) 학장님, 성상철(73) 서울대학교 병원장님, 이길여 명예 회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윤정철(65) 김병원 부원장님께 특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동문들과 가족 여러분들의 만수무강과 만사 형통을 기원하면서 이임사에 대신 합니다.

<b>2006-2007 Executive Officers</b>	President President Elect First Vice President Second Vice President Secretary Assistant Secretary Treasurer	Daniel Dong-Choon Jo, M.D. (64) Young Ja Choi, M.D. (66) Yong Ho Auh, M.D. (72) Nicolas S.C Lee, M.D. (70) Thomas Hong Suh Kim, M.D. (69) Se Hwa Park, M.D. (76) Dong Hoon Kim, M.D. (77)
<b>Committee Chairman</b>	Finance Scholarship Fund Raising Fund Management Research & Fellowship Green Project Publication By Laws Advisory & Exchange Nominating Central Office Management Silver Project	Yeong S. Sir, M.D. (61) Bun Raymond Lim, M.D. (67) Il Young Kim, M.D. (71) Michael Myunghee Lee, M.D. (66) Peter Lee, M.D. (68) In Suk Seo, M.D. (73) Damian Byungsuk Kim, M.D. (59) Yong-Myun Rho, M.D. (55) Manual Man-Tack Lee, M.D. (58) John Joonhi Choi, M.D. (64) Kenneth Kwanho Song, M.D. (64) Kyungtak Minn, M.D. (65)
<b>2007 Winter Convention Chair Scientific Chair</b>		Andrew K. Choi, M.D. (76) Christopher K. Chung, M.D. (72)



# 2005-2006 제2차 대의원회의 초록



일시: 2006년 6월 25일 오후 4시30분  
 장소: Taj Mahal, Atlantic City, NJ  
 사회: 서인석 (73) 총무  
 참석자:

이규용(41) 노용면(55) 정구영(57) 신상균(58) 이만택(58) 이운순(58) 이희경(61) 정정수(62) 조한원(63) 추재욱(63) 권정덕(64) 오탈희(64) 조동준(64) 최준희(64) 민경탁(65) 이한중(65)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임용규(69) 오용호(72) 문대욱(73) 서인석(73) 김중호(86) 손세일(02)

Proxy:

김응식(55) 동형근(57) 박호현(58) 김병석(59) 최종진(59) 한성업(59) 이경화(60) 박승균(61) 서영석(61) 이재승(61) 남성희(62) 이상무(62) 조명호(62) 임춘수(63) 임현재(65) 채무원(65) 이종현(66) 이민우(67) 이태석(67) 김중권(69) 김홍서(69) 엄규동(69) 이성춘(70) 인정길(70) 노재홍(71) 오동환(71) 위장호(73) 김원정(75) 심인보(83)

1. 성원 점검(25(3명 겸임)명 참석, 29명 Proxy: 총 100명중 57명 이후 오후 4시50분에 개회 선언.

2. 2005-2006 제1차 대의원회 회의록(11/19/2005)을 수정 없이 통과.

3. 최준희(64) 회장 인사

- 이번 summer convention을 위해 애쓰신 모든 임원진 및 참석하신 동문 및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에서 오신 하권의 동창회장, 왕규창 학장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동창회 행사에 donation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차기 조동준회장단의 건투를 바랍.

4. 서인석(73) 총무 보고:

- 새 주소록을 위해 애쓰신 이성근(66)동문, 동창회 사무실 미세스 김, 유니온 프린팅 황창근 사장, 광고 협조를 해주신 동문, 동기회, local chapter, 길병원, 모교 동창회, 모교 병원, 서울의대 및 모든 협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총 550명에서 동창회비를 납부하심. 회비납부 통지서를 4번이나 내 보냈지만 큰 성과가 없었음, 차기 회장단께서 풀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임.

- 새로 마련한 웹사이트의 많은 이용을 바랍.

- 가능한 모든 notice 및 correspondence를 이메일을 통해 하도록 노력했음.

- 새 주소록을 위해 1만 달러를 책정했었는데 광고 협찬으로 1만 달러 이상의 기금 모금을 했음. 추재욱(63) 기금모금위원장께 특별 감사를 드림.

- 모든 동창회 행사는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balanced budget을 마련한 뒤 행사를 준비해야

될 것임.

- 동창회비를 내신 시카고 지부 동문들의 명단이 지난 몇 년간 시계탑에 게재 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지부 회장단 임기(1월 1일-12월 31일)와 전체동창회 임기(7월 1일-6월 30일)가 다른 관계로 야기된 시행 착오임, 다음 시계탑에 사과문을 실을 예정입니다.

5. 심인보(83) 재무 보고 (서인석 총무 대신 보고)

- 동창회비를 포함 총수입 12만4천9백6달러, 총지출 7만7천4백41달러, 6월 23일 현재 4만7천4백65달러 잔액이 있음.

- 11월 19일 Annual Ball 4천3백30달러 모금 했음.

- Green Project fund에 1만9천2백95달러 잔액이 있음.

- 썸머 컨벤션 후 최종 결산을 한 뒤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6. Committee 보고

(1) Finance: 최순채(66) 위원장

- 재무 보고에 2003-2004 이월금을 2004-2005 이월금으로 정정함. 본 회의에 제출된 재무 보고는 임시이며 썸머 컨벤션 결산이 끝나는데로 최종회계보고를 감사한 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2) Scholarship: 문대욱(73) 위원장

- 김 앤드류(3천달러), 김 마가렛(3천달러)과 안 나콜라스(4천달러)를 추천, 만장일치로 가결 됨.

- 오민석(오태요 '62 동문 아들)이 제공하는 오태요(62) 장학금 및 김건언(65) 장학금은 모교 본과 재학생 최근 회 및 노두현에게 졸업 때까지 매년 5천달러씩 수여 할 예정입니다. 시계탑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 동문 및 동문 자녀들에게 알려 이와 같은 장학금이 더욱 늘어나기를 요망함.

- 앞으로는 장학금 공고 및 확정을 앞당겨 장학금 수여식을 썸머 컨벤션이나 연례만찬 등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

- 최순채 위원장이 장학금은 반드시 교육용으로만 쓰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함. 문대욱 위원장이 장학금은 가능한 한 재학생인 학교로 보내고 있음을 보고함.

(3) Fund Raising: 추재욱(63) 위원장

- 연례만찬, 주소록 및 썸머 컨벤션에 도움을 주신 동문 및 기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림.

(4)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66)위원장(서인석 총무 대신 보고)

- 올해 들어 큰 변동없이 5월 31일 현재 42만6천3백69달러의 Fund가 83% Stock, 17% Bond 의 비율로 남아 있음.

(5) Publication: 김병석(59) 위원장 (서인석 총무 대신 보고)

- 지난 4월 모임에서 동문 및 동문 가족들의 book signing event를 갖기로 하고 시계탑을 통해 광고를 냈으나 현재까지 별 반응이 없음.

- 조동준 차기 회장께서 시계탑을 칼라로 발간 할 것을 건의하심. 필요시에는 칼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6) Research & Fellowship: 오탈희(64) 위원장

- 하권의 모교 동창회장께서 지난 해 합춘 연구기금 비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 차후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 오는 10월 1일자 시계탑에 합춘 연구기금 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7) By-Law: 노용면(55) 위원장 (서인석 총무 대신 보고)

- 새로 standing committee 로 확정된 'Green Project' 및 Central Office Management committee의 임무 및 임기를 정관에 삽입했음.

- 수정된 정관을 새 주소록에 첨가했음.

(8) Nominating: 이한중(65) 위원장

- 2006-2009 이사에 민병덕(59), 채규철(59), 이흥표(64), 권정덕(64), 황규정(65), 이근웅(67), 문광재(68), 윤효운(69), 서인석(73), 문대욱(73)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됨.

-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 차차기 회장에 최영자(66)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됨.

(9) Green Project: 서인석(73) 위원장

- 74년 이후 동문 총 115명 중 썸머 컨벤션에 6명(연사 3명, 모교 학장 포함)이 참가함. Young member들의 참석이 간절히 요망 됨.

- 모교 학장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때 원하는 재학생들에 대한 elective course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6주 이상의 elective course는 pass/fail의 학점이 부과됨. 매년 1만달러 이내의 동창회 장학금을 이들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 모교 학장 및 모교 동창회장께 도미를 원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Silver Project: 민경탁(65) 위원장

- 은퇴하시는 동문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들을 위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지 않음. 컴퓨터 클래스 등을 라스베가스에서 가릴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실 위원들을 찾고 있음.

(11) 2006 썸머 컨벤션: 권정덕(64) 위원장

- 많은 임원들의 협조로 만반의 준비가 완료 되었음.

- 91% 이상이 사전에 등록,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음.

(12) 2006 하계 학술대회: 최영자(66)위원장

- 연사들의 협조로 100% abstract를 사전에 입수함. 특히 2세들의 참가로 더욱 더 의의가 있음.

- 조동준(64) 차기회장님께서 CME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으심. 이만택 위원장님께서 tax exempt organization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함. 문대욱 위원장이 CME를 어느 정도 줄이고 Non-CME를 높이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7. New Business

- 이한중 전임 회장께서 Non CM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창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함.

- 조동준 차기 회장께서 총무에 김홍서(69), 학술위원장에 최광휘(76), 학술위원장에 정균희(72)동문이 수고할 것이라고 발표함.

- 8월 19일 ~ 27일 콜로라도 기차 여행을 계획 중임. 시계탑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폐회: 오후 5시 55분 기념 촬영 후 폐회함. 다음 대의원회는 로스앤젤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록: 서인석(73) 총무

**시카고 지부 동문께 드림**

본부(7월 1일 ~ 6월 30일)와 지부(1월 1일 ~12월 31일)의 임기기간이 다른 관계로 지난 몇년간 시카고 지부 동문들의 동창회비 납부 명단이 계속 누락되어 왔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올리며 다음호(10월 발행) 시계

**동창회비 납입**

Annual Dues & Contributions (July 1, 2006- June 30, 2007)

MEMBERSHIP DUES	\$125.00
DIRECTORY & DVD	\$
HAMCHOON ALUMNI-HALL FUND	\$
SCHOLARSHIP FUND	\$
DONATION	\$
<b>TOTAL</b>	

Name: \_\_\_\_\_ Class: \_\_\_\_\_

Please indicate your local chapter: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S.N.U.C.M.A.A.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re tax deductible.

Please call (718) 888-2622 or Fax. (718) 888-2608 if your address has changed.



### 동문동정

이형모(49) - 모교 동창회가 시상하는 제7회 (2006년) 합춘대상을 수상했다. 동문은 오랫동안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계시면서 혈관외과와 장기이식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임낙중(59) - '임낙중 글 모음집'을 발행했다. 오랫동안 시계탑에 실려 독자들을 즐겁게 한 글들이 많이 실려 있다. 임동문은 책표지에 "수필의 격식을 떠나, 논문 같은 글, 서양 에세이 같은 글도 섞여 있어 보통 수필집과는 성격이 다르다. 나는 내 글을 읽고 동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람 있고 그걸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유준석(59) - 지난 5월 17일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유동문은 61년 도미하여 1999년까지 anesthesia 개업을 하다 은퇴했다.

김용재(66) - 지난 6월 12일 어머니께서 향년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슬하에 9남매를 두셨는데 김용재 동문이 그중 장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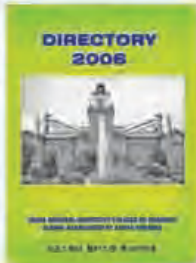
우준균(67) - 책 Split Verdict를 출판했다. 이비인후과 개업의사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험을 토대로 쓴 책으로, 의사들이 악덕 변호사들에 의해 부당하게 고소 당하고 법정에서 나가 배심원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에 책.



노재홍(71) - 5월 20일 뉴저지 대원에서 60세 파티를 성대히 가졌다. (사진은 노재홍 동문 부부)

## 2006 미주동창회 새 주소록 발간

지난 2001년 미주동창회 주소록이 발간된지 5년 만에 2006년도 새 주소록이 발간됐다. 새 주소록에는 이메일과 셀룰라 폰 번호, 그리고 찾아보기 난에 동문들의 전화번호가 지역별로 수록되어 있어 지방여행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동창회 본부에서 수개월에 걸쳐 동문들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입력하였고, 이성근(66)동문이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했으며, 또 여러 동문 및 광고주들의 협조로 발간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신간 소개

## SPLIT VERDICT



한 이비인후과 개업의사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험을 토대로 쓴 책으로 의사들이 악덕 변호사들에 의해 부당하게 고소 당하고 법정에서 나가 배심원들에게 심판을 받는것에 대한 항의성 고소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준균 동문은 medical malpractice 에 저항하며 싸운 쓰라린 이야기를 그간의 일기와 법정기록에 의거해서 집필 6년 만에 드디어 272 페이지 책(영문)으로 완성 하였다.

우 동문은 Staten Island에서 성공적인 이비인후과 개업의 29년 생활을 청산한 후 현재 1년간 교환교수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동료 병원의사들도 우동문의 원고를 미리 읽어보고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유창하고 쉬운 영어로, 페이지도 잘 넘어가게 쓰여 있어 쓰라린 이야기지만 누구나 가볍게 읽을 수 있다. 책의 정가는 20달러 이지만 동문에게는 10달러+송료에 보급하고 있다. 관심있으신 동문들은 다음과 같은 이메일 주소로 우준균 동문에게 직접 연락하시기바란다. 이메일 : Splitverdict@hotmail.com

### Split Verdict를 읽고

닥터 우께서 쓰신 Split Verdict 책을 받고 곧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학용어에도 자신이 없고 법정 제도에는 더욱 문외한이여 격정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열어 보았습니다. 한장 한장 읽어가면서 너무나도 자세한 설명과 쉬운 문장체에 빨라들어가 흥분하고 가슴 아프고 울고 웃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30년 동안 쌓은 풍부한 경험과 해박하고 정확한 의학지식을 가지고, 돈에 진실을 팔고 동료 의사를 매장시키려는 무리들과 가지 좌절, 포기하지 않고 싸워 승리하는 닥터 우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inspiration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평소애 알고있던 훌륭한 의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반석 위에 쌓아올린 부부애를 확인하며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속에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 김애라 (김인귀 '67 동문 부인)

### 편집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06년 7월 7일(금) 오후 7시

장 소: 청해진 식당, 퀸즈, 뉴욕

참가자: 노용면(55), 김병석(59, 편집장), 이희경(61), 송관호(64), 최준희(64), 허선행(64), 서 랑(69) 서 인석(73), Mrs. 노용면, 이희경, 송관호, 최준희, Mr. 황창근, Mrs. 김혜경.

- 김병석 편집장께서 지난 일 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편집 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준희 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동준 신임회장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심.

- 이번 호는 친구회장 취임사 및 학술 대회 보고가 주 의제임.

- 지금까지 마련된 원고를 중심으로 대강의 페이지 선정을 함.

- 매 원고를 점검, 출판여부 및 교정을 함.

- 순번제로 마지막 교정을 보기로 한 지난번의 결정에 따라 김병석 편집장 방한 동안 서인석 편집위원이 이번호의 편집 책임을 맡을 예정임.

- 최근 조동준 신임회장께서 김병석 편집장에게 보내신 몇 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 간단한 회의를 가짐.

1) 원로 동문의 동창회의 장래에 대한 기사: 원칙적으로 동창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사임에 전원 찬성함, 강수상(53) 동문께서 다음 호 시계탑에 기사를 쓰실 예정임.

2) 원로 동문 인터뷰 기사: 전국의 모든 지부마다 경쟁적으로 인터뷰 기사가 실릴 수 있기를 요망함. 타이틀은 [동문탐방: \_\_\_ 지부로 하기로 함. 가족사진 등 단체사진은 권장하나, 개인사진은 지양하기로 결정함.

3) 컬러편집: 예전에 비해 필요시 편집장의 재량으로 결정하기로 함.

4) 동창회 사무실 Mrs. 김혜경 소개 기사: 사무실장으로서의 역할 및 활동사항 그 외 간단한 본인 소개 기사를 실을 예정임.

5) 시계탑 기사에 졸업년도 및 지부 표기: 전원 찬성함.

- 매호 편집후기 대신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만장일치로 통과됨.

- 9시 30분 폐회를 선언. 다음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고할 예정임.

## 동창회 김혜경 사무실장을 찾아서



지난 6월 25일부터 뉴저지의 애플턴 시티에서 있었던 학술대회 중 새벽 여섯 시부터 밤 늦게 까지 시종 미소를 잃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던 김 실장의 성실함에 많은 동문 및 가족들께서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동명군(57, 라스베가스) 전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숙원 이었던 동창회 사무실을 여신 후 첫 4개월 만에 실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임무를 맡으신 미세스 김은 그후 여섯 분의 회장님들을 거쳐 이번 조동준 회장님이 일곱 번째가 됩니다. 매년 바뀌는 회장단의 뒷바라지를 조금의 번들도 없이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흩어져 계시는 1,150명의 동문들과의 연락, 시계탑 등의 매일 발송, 경조사 뒷 바라지, 지부 회장단, 학년대표, 본국 동창회, 모교, 기타 병원들과의 연락등 일상 업무는 물론, 매년 2번씩 열리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준비 등 동창회의 숨은 일꾼입니다. 특히 회장단이 뉴욕 밖에 있을 때는 central office management committee와의 협조로 회장단 및 임원진의 애로를 풀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동창회 Website에 1,150명 개개인의 성명과 ID를 타이프 하였고 이번 새로 나온 directory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문의 website ID를 타이프 쳐서 보내드리는 정성을 보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Carpal tunnel syndrome을 얻어 지난 3개월여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미세스 김이 몇몇 사항을 동문들께 부탁 드립니다.

1. 각 동문들의 주소 변경(전화, 팩스, 이메일 포함) 통보.
  2. 동창회비 및 기타 납부 누락 및 정정 사항 통보.
  3. 동문 및 가족들의 경조사 통보.
  4. 지부 회장단 및 학년 대표 변경사항 통보.
  5. 지부 및 학년 특별 행사 및 소식 통보.
  6. 지부의 revenue sharing 및 기타 본부에 대한 협조 사항 통보.
-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동부 시간 기준)입니다. 전화: 718-888-2622, 팩스: 718-888-2608, e-mail : snucmaa@yahoo.com, website : www.snucmaa.org 입니다. - 서인석(73) 전 총무

## 기차로 떠나는 콜로라도 여행

"Discover West America"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장엄한 산들과 험악한 절벽, 계곡을 따라 맑고 깨끗한 콜로라도 주를 기차를 타고서, 가장 경치 좋은 국립공원으로 자연을 찾아가는 여름 휴가를 동문들께 소개합니다. 작년 여름 61년도 졸업동기들의 reunion 프로그램으로서 50여명에게 크게 환영받은 프로그램 입니다. 이번에는 콜로라도에 사시는 김유홍(61)동문께서 assistant guide로서 동행하시게 됩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신청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주관 여행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andi@centennialtravel.com)

Date: August 19 ~ 27 2006 for 50 people only(first come, first serve)  
Reservation: Centennial Travelers / P. O. Box 1416, Ft. Collins, CO 80522  
\$200 per person due at time of reservation before July 21, 2006  
Price: \$1,189 double occupancy (\$1,579, single)  
Toll free phone: 800-223-0675 contact Sandi





1960년 졸업 등분으로 몇 년 전에 은퇴하여 한가한 생활을 즐기고 계신 권기홍 선생님께서 그간 겪은 일들이며 또 요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 보기위하여 찾아 보았다. 약속한 장소에 찾아가 보니 Cal State Fullerton 근처에 큰 나무들로 싸여있는 도서관같은 분위기의 사무실인데 막상 선생님을 뵈고 이야기를 듣다보니 선생님의 일상 생활은 여러가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무실 주변의 한가한 분위기나 은퇴 생활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먼저 요즘 생활부터 옮겨 보자면 2002년 말에 은퇴하신 이래 그 전부터 추진해 오던 무봉합 혈관연결에 관한 연구 개발에 계속 몰두하고 있다. 내장이나 피부에 staple을 사용하고 피부열창에 superglue를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혈관을 suture없이 연결한다니 실 바늘없이 옷 짓다는 것 같아서 어리둥절하며 혹시 바느질없이 접착제로 이어 (seamless technique!) 만드는 등산복같은 것이 아닌가 했더니 바로 그것이라고 말해 주시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혈관을 풀로 붙혀 놓으며 접합부위에 가로 세로 높이의 모든 방향으로 항상 변하는 장력이 작용할 터이고 거기에서 shearing force까지 작용하고 cell turnover에다 immune response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굉장히 힘들겠다고 생각부터 떠올랐다.

선생님 설명에 의하며 우선 bio-glue를 혈관 접착부에 바르고 laser같은 high energy beam으로 이를 순간적으로 활성화시켜 급속 응고작용 유도한다는 간단한 이치인데, 그 bio-glue의 원재료는 바닷속 바위나 선박 밑에 붙어사는 barnacle이나 mussel 등에서 추출한 muscle protein의 일종으로, 이들 분자를 변화시켜 non-immunogenic, non-toxic synthetic polymer를 design해 내는 것이 이 공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것이 완성되면 트럭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상당한 진전이 있어 몇 가지 후보 물질은 동물실험을 거쳐 특허출원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다른 소일거리로는 일주일에 세번 정도 즐기는 골프가 있고 사모님과 함께 Disney Hall, L.A. Opera House, Hollywood Ball 등의 정기 구독자로 음악을 즐기며 또 이 지역의 유명한 재벌, Harold Segerstrom을 치료해준 인연으로 이 분의 후원을 기반으로 설립·확장되고 있는 South Coast Performing Art Center에도 자주 간다. 거기에 더하여 일년에 3, 4번 사모님과 함께 하는 여행은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 가능하면 그 중 한번은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이번 6월 말에도 두 분이 보름 남짓 독일을 다녀 오셨는데 월드컵 축구장에서 '대-한국'을 외치고 오셨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Danube River Cruise를 즐기고 오셨다고 한다.

사모님께서는 이화여대 가정대학 졸업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셨는데 1965년 뉴욕에서 열린 World Fair 구경 오신 기회에 만나 2년 남짓의 미대륙을 가로 지르는 courtship을 거쳐 chief resident로 근무하던 1967년에 결혼하셨다.

두 분 사이에 딸과 아들을 차례로 두셨는데 따님은 USC에서 영화 제작·감독을 전공하고 영화감독 Ron Howard(Cinderella Man, Da Vinci Code 등)에게서 인턴쉽을 거쳤다. 현재는 freelance contractor로 major TV의 program 제작·감독에 활동하고(이미 방영된 program portfolio가 20여 편)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화감독이며 지난 2월에 결혼하여 산타모니카에서 살고 있다. 아드님은 부부 변호사로 본인은 public service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뉴올리언즈에서 살고 있다.

사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한 이래, 한참 전부터 LA 지역의 미술과 음악 community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해 오며 바쁘게 지내시는데 요즘에는 The Museum of Modern Art의 trustee 직책을 맡고 계시다.

권기홍 선생님은 학생시절 당시 미국에서 정형외과를 마치고 귀국하신 이관호 교수님을 가까이 뵈면서 미국에서 정형외과를 공부하려는 생각을

차츰 초조해지게 된다. 그러던 차에 L.A. Century City에서 열리는 흉곽 외과 학회에 참석하느라 서든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데 학회 후 산타 바라라에서 샌디에고까지의 해변을 돌아 보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좋은 기후, 그리고 진취적인 분위기에 끌려서 이곳으로 이주하기로 작심한다. 다음 해(72년)에 전 번 여행 중 눈도장을 찍어 놓은 오렌지 카운티로 옮겨 Fullerton의

서 BSH의 시술은 계속 늘 것이고 더구나 지금 개발중이 bio-glue의 임상 이용이 시작되면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손재주에 의존하는 정도도 크게 줄어들 터이니 BHS보급에 획기적인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생님께서 30여년의 활동 기간동안 시술한 open heart surgery 숫자는 대략 25,000례 정도인데 그 중 70%는 CABG, 20%는 valvular heart disease, 나머지 10%는 aorta, pericardium, 또 congenital heart disease 등의 수술이다. (내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져 실례를 무릅쓰고 세 번 반복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숫자는 2와 5, 그 뒤의 동그라미는 세 개라고 분명히 확인하여 주셨음) 이처럼 바쁜 생활을 하시다 보니 은퇴도 원래 바랐던 60세에는 어렵도 없었고, 5년 후에도 결국 못하고 지난 2002년 말에 겨우 개업 사무실을 단으셨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서 조국과의 학술적인 접촉이 두 번의 모교 방문에 그쳤다는 말씀에 물론 너무 바쁜 탓이었지만 무척 놀랍고 실망스러웠다.

첫번 방문은 1987년 경주에서 열린 대한 흉부 외과학회에 참석후 당시 모교 부속병원 흉곽외과 과장님이신 서경석교수님의 초청으로 시범 시술이 있었는데 그 때 무료로 수술받은 환자 두 분은 강원도 산골에서 뽑혀 온 가난하고 위중한 상태의 노인들이었다. 시술 후 곧 바로 되돌아 오셔야만 했던 일정때문에 수술 후 경과를 웬만큼 지켜보지 못하고 상태가 안정되기도 전에 잠깐 그 두 노인 환자를 방문하여 작별인사를 나누는데 그 두 분이 거친 손으로 자신을 살려 준 선생님의 두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며 두고 두고 기억되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경험한다. 1992년 두번째 방문 때는 시골 노인이 아니라 서울의 모 명문 사립대학교 동창회장님을 수술하여 그 의과대학 의료진의 질시를 받기도 한다.

물론 임상이라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크고 작던 간에 항상 보람을 느끼기 마련이고 특히 심장외과같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는 것은 물론가지이나 그래도 30년간의 임상 생활 중 가장 보람있게 기억되는 경우는 첫째는 위에서 이야기한 87년 모교 방문시 시술한 두 노인 환자 분들의 경우이고 두번째는 은퇴 직전에 시술해 준 한 환자의 경우라고 한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emergency call에 병원에 불러 들어가보니 환자는 벌써 수술대 위에 있는데 이미 CPR을 15분이나 하고 있는데 혈압과 심장박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으로는 거품이 푸럭푸럭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젊은 cardiologist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50세도 채 안된 이 환자가 사는 것은 "Surgery is the chance" 라며 수술을 했으면 하고 사정을 하는데 초를 다루어 환자의 가슴을 열든지 아니면 사망선언을 해야되는 순간이었다. 간호사에게 환자의 의료보험이 무엇이나 몰으니 아무 보험도 없다는 대답이어서 선생님께서서는 서슴치 않고 수술을 시작했고 환자는 10일 후 두발로 걸어 집으로 퇴원했다. 수술후 동료의사들이나 OR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환자의 의료 보험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초 위급 상황에서 그걸 물었는지 몹시 궁금하게 여겨 그걸 물어본 이유는 자신이 돈만 아는 의사로서 시체와 다름없이 다 죽은 사람을 의료 보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했다는 오해를 받기가 싫어서 보험이 있는 환자였으면 수술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오히려 보험이 (다음면에 계속)

**동문탐방 - 남가주 지부**

**심장외과 권기홍(60)**

오동석(72 남가주)



권기홍(60) 동문

찾는다. 1960년에 졸업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의료 정책의 혜택으로 군복무 대신 천안에 과전되어 일 년 동안 근무하고 도미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계신 동기 분들은 김영기, 김익진, 김홍석, 신정승, 오준철, 이덕승, 이경화, 정오영, 정인숙 등 모두 아홉 분)

1961년부터 뉴욕 브루클린의 Kings County Hospital (1955년 뉴욕주에서 최초로 open heart surgery를 시술 한, 심장외과 분야에서 가장 앞서 가는 병원 중의 하나였음)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으로 외과 수련을 받는다. 수련을 시작하며 막상 직접 경험 관찰하여 보니 수학과 물리학 등의 여러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cardiac mechanism이나 hemodynamic 등으로 복잡한 심장의 과가 학생시절부터 수학과 physics를 좋아 하던 선생님께 정형외과보다 더 매력적임을 보인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수술 기술들마저 아직도 개발 단계이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는 점이 오히려 이 분야가 더욱 도전적으로 여겨지고 강한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결국 이 분야에 투신하기로 정한다.

외과 수련의 과정을 끝내고 chief resident까지 하고 나서 계속 흉곽 외과 fellowship을 마치니 8년이 지난다. 수련의 생활을 마칠 무렵, 가능하면 chief resident로 더 경험을 쌓으라는 어느 attending physician의 조언을 받아들여 St. Paul Medical Center (달라스, 텍사스)에서 다시 chief resident로 일하며 수술 경험은 물론 크고 복잡한 조직과 인원의 운영 관리 경험도 습득하게 된다.

이 말씀 도중에 제 자식이 외과수련 중인데 앞으로 흉곽외과를 하겠다고 하니 한마디 조언을 해 주십사 하니 외과는 본질적으로 pro-active에다 성공 실패가 분명하여 매우 도전적일 뿐 아니라, 특히 흉곽·심장 외과는 지적으로도 굉장히 자극적인 영역으로 이에 비례한 성취감도 높으니 아주 잘 된 선택이라고 마치 당신 일처럼 기뻐하신다. 그리고 평소 많이 생각해 보신듯, 가능하면 prestige가 높은 병원에서 수련할 것, 미래의 외과영역 특히 흉곽외과는 high tech-bioengineering을 이용한 less invasive procedure를 이용하게 될 것이니 이에 대한 기술 훈련은 물론 스스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것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을 것을 조언해 주셨다.

선생님께서서는 십여년 가까이 깔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1971년에 새로 만들어진 심장외과에서 일하기로 하고 일리노이주로 갔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계획된 일들은 시작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너무 보수적인 분위기에

St. Jude병원에서 open heart surgery department 를 창설하고 practice를 시작한다.

이렇게해서 시작된 심장외과의로서의 생활은 지난 2003년 은퇴 할 때까지 31년 넘게 계속되는데 그 동안 이 지역에 cardiac surgery위한 O.R. 과 post-open heart ICU를 set up하고 그 인원들을 훈련시킨 병원은 1972년 St. Jude Hospital을 시작으로 Anaheim Memorial Hospital('73), Wittier Presbyterian Hospital('75), Western Medical Center of Anaheim('78), Western Medical Center of Santa Ana('79), Downey Community Hospital('86) 등에 이른다. 거기에서 그 동안에 10수편의 학술 논문도 발표하여 개업의로서 성공 뿐 아니라 학구적인 심장외과의로서의 스스로를 분명히 한다.

또 90년대 중반부터 Jehovah's Witness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수혈 거부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다 보니 heart-lung machine (HLM)을 쓰지 않고 시술하는, 소위 beating heart surgery(BHS)시술법을 연구 개발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Jehovah's Witness들이 개심술을 위하여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Jehovah's Witness 환자들의 수혈 거부 기가 기가 되어 개발 완성된 BHS는 시술중 수혈의 필요성을 없게 할 뿐 아니라 HLM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CABG후 빈혈이 오지 않고(HLM을 거쳐간 RBC는 수명이 10일 내외로 줄어듬), 면역 저하 현상이 없고, 대부분의 환자에게 오는 memory disturbance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의 장점이 확인해져 대부분의 환자에게 사용하게 된다.

이 시술법에 대한 소개와 임상경험은 1999 American Journal of Surgery에 실린 논문 Complete myocardial revascularization on the beating heart를 통하여 학회에 보고되었고 같은 해에 흉부·심장 외과 학회에서는 Complete Coronary Artery Revascularization on Beating Heart 라는 제목의 10분 길이의 video가 발표됐는데 이것은 지금도 학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BHS는 학계에 발표되어 검증 받고 그 우월성이 분명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수술법을 배우려면 Standard Bypass Procedure에 상당한 경험을 쌓고, 타고 난 손재주가 상당히 있어야만 되는데다가 일정한 양의 시술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숙련도가 유지되기때문에, 이를 할 수 있는 심장외과의들은 크게 잡아도 전체에 15% 정도에 불과하다. 거기에서 이를 전혀 하지도 않는(해석 = 하지 못하는) 일부 심장외과의들이 BHS 자체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내어 놓고 있고 간혹 major mass media 조차도 치우친 내용의 기사를 실기도 하여 일반인들을 혼동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 미국과 한국의 언론오보

김 일 훈(57 시카고)

## 미국의료와 언론오보

시험관실험결과 레몬주스가 HIV(에이즈 바이러스)와 정자를 파괴하는 작용이 있다는 연구발표가 있다.

어디까지나 실험실 연구결과에 불과한데도, 미국의 4개 지방 TV 뉴스에서 여자는 섹스 때 콘돔대신 레몬주스를 마시면 HIV 감염예방과 피임 효과가 있다고 방송했다.

인체실험이 없었는데도 방송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학계에서 인정된 사실인양 시청자에게 알렸던 것이다.

그중 한 방송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이즈 예방치료는 값비싼 HIV 치료약 대신에 레몬주스 복용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제멋대로 비약적인 보도해설까지 곁쳤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의료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는 신문 등 지면을 통한 뉴스나 중앙 TV방송의 경우는 비교적 정확하나, 특히 시골 지방방송에서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편견보도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언론에 비해 지방방송의 의료기자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일 언론오보가 시청자나 환자를 해치는 일이 없다면 다행이었으나, 대개의 경우 이러한 오보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위협천만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3/4(76%)은 지방방송을 통해 건강과 의료문제 지식을 얻게 된다는 통계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지방방송국에서 의료전문기자 채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다.

2002년도 지방방송의 오보를 분석한 '일반인을 위한 의학뉴스와 지방 TV뉴스'(Medical News for the Public to Use? What's on Local TV News)라는 연구조사가 나왔다(Am. J. Managed Care,

2006년 3월).

지방뉴스 중에서 약 11%가 건강문제를 커버하며, 그중 가장 많은 토픽은 유방암(10%)과 2002년에 유행했던 West Nile virus(9%)이고 그 다음이 심장질환(3%)과 인플루엔자(3%)와 비만 관련기사(3%)이다.

잘못 보도된 기사와 그 시청자 수는 표(방송뉴스에 잘못 보도한 의학스토리 5건)와 같다.

가장 많은 오보는 자기 손으로 하는 유방검사교육이 유용하지 않고 시간낭비가 된다는 보도다. 표에서 보통 26개소 미디어에서 40회 방송되었으며, 시청자는 무려 4천5백만명이나 되었다.

자신의 유방검사는 90% 논문에서 적극 추천되고 있는데도 일부 극단적인 논문을 피입한 편견보도는 시청자를 그릇된 길로 이끌게 마련이다.

이러한 곡해를 가져오는 스토리 출처도 물론 과학연구문헌이다. 하고많은 논문을 도의시키고,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연구결과를 신기하다고 해서 사실처럼 시청자에게 알리기를 좋아하는 미디어 습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비평이 일고 있다.

의료문제에 관련한 새로운 뉴스는 반드시 여러 전문가에게 재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지방방송이 미국인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 역할을 하는 현실에서, 잘못된 건강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방송업계에 대한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논문 저자는 강조했다.

일부 중앙 언론엔 의료전문인이 직접 의료해설가가 되어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주간타임지의 의료칼럼니스트 겸 CNN 방송의 인기 있는 의료해설가 닥터 Gupta(인도 출신)는 미국신경외과

전문이다.

뉴욕 버펄로 의대의 병리학교수 닥터 Ostrow는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지식을 교육해야하는 일이 의학도의 사명이라는 신념으로, 바쁜 일과를 나누어 버펄로 방송국의 파트타임 의료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다.

세인트루이 워싱턴의대 의과교수 Dr. Kodner는 그 지역 CBS 방송국의 의료해설가를 자원해서 봉사하고, 전국 방송국은 자기처럼 의료인 또는 의료전문기자 출신 방송인을 최대한 채용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의료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감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며, 그러기 위해선 우수한 의료전문기자 양성이 아쉽다.

## 한국의료와 언론오보

한국에도 우수한 많은 의료전문기자가 있는 줄 안다.

필자와 지면이 있는 의사협회신문의 송성철 기사는 이따금 필자에게 미국 의료의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해오는데, 그는 뉴스보도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유능한 의료전문기자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한국언론상을 받기도 했다.

점점 없이 비전문가 나름의 제멋대로 해설로 독자나 시청자를 혼동시킨다면 그런 보도는 백해무익하다 할 것이다.

5년 전 한국서 안락사 논쟁이 한창일 때 여기대만 언론오보가 난무했던 일이 기억에 새롭다. 당시 MBC의 최승호 PD는 안락사 세미나의 연사로 참가한 이력이 있는 필자에게, 안락사 문제에 대해 한쪽이 넘는 질문을 e-mail해왔다. 면식이 없는 분야나 질문내용이 워낙 요령있고 철저히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었으며, 필자로서도 아는 한 긴 설명을 가해서 회답했다고 기억한다.

근래 알게된 일이지만 바로 그가 줄기세포의 조작비밀을 폭로한 공로자이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훌륭한 의학적

자가 한국에 있는 반면, 보도경쟁에 있어 내용을 거르지 않고서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결과 한국서 언론오보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6년 1월 17일자 안락사와 관련된 미국 대법원 판결을 두고서 한국신문과 방송은 마치 미국법조계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피어가는 듯, 서두에 언급한 미국 지방방송처럼 제멋대로 비약적인 해설을 가했다(참조: www.bosa.co.kr에서 2006. 1. 31일자 필자 칼럼).

한국은 건강문제보도에 있어 국민에게 도움주는 제목보다 흥미본위의 내용을 위주로 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줌마시면 잠수한다는 야만적인 기사가 일류 신문에 나와 있는가 하면, 건강토픽의 회수도 현대의학과 천년 이전 한의학 글이 맞먹는다.

세계 10위권 선진국에 진입하는 한국인데도 의료계에서 이러한 무지막한 후진국 사태가 난무하는 이유는 무식한 지도자를 만난 불행만이 아닐 것이며, 의사와 의학자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평소에 사회활동(강연 등)과 글을 통해서 언론인과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시키는 노력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을 찾아야 한다'는 의학도의 글은 어느새 국민과 언론에서 한의사와의 밭그릇 다음으로 인식할 만큼, 국민의 의식구조가 변해버렸다.

이러한 참피한 현실에서 앞장서서 국민교육을 담당해야하는 의학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그 책임은 극히 일부의 의학칼럼니스트만이 아니라 모든 의학도의 두 어깨에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

다행히도 이런 과제를 역설하며 솔선수범하고 있는 두 분이 2006년 새로이 의사협회장(장동익)과 의학회회장(김건상, 69년졸 동문)의 중책을 맡게 되었으니, 한국의료계의 앞날이 밝아질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 세계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 세계보건기구 고 이종욱 (1945-2006)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WHO) 이종욱 사무총장이 지난 5월 22일 제네브에서 서거하였다. 신념과 정열로 일생을 지구상의 전염병과 싸우며 인류의 건강을 최대로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던 그가 영원히 떠나자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은 "세계는 오늘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하고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종욱 사무총장은 1976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81년 하와이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불우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대학시절의 대부분을 환자 요양원에서 보낸 사회봉사자로 잘 알려져 있다. 석사과정을 마치자 남태평양 아메리칸 사모아 섬, 린든 B. 잔슨 병원에서 Hansen's disease(leprous) 진료로 시작하여, 다음 해에는 남태평양의 피지(Fiji) 섬에서 나병퇴치 팀을 이끌면서 1983년부터 세계보건기구와 인연을 맺었다.

WHO의 백신(vaccine) 국장과 결핵국장의 요직을 역임하면서 1985년에는 소아마비(polio) 발병율을 세계 인구 만 명에 한 명으로 감소시켜 '백신의 영웅'으로 알려졌다. 2003년 7월 21일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자 삼 년동안 오대양과 육대주, 아프리카 오지를 비롯하여 북한에 이르기까지, 모두 60여 나라를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근래에는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예방과 치료,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영수들과 만나 전염병 퇴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며 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하였다. 세계 8개국 영수회담이 러시아에서 열렸을 때 푸틴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이종욱 사무총장은 그 특유의 웅변으로 각국 수뇌들을 감탄시켰다.

한국인으로서의 역사상 처음으로 UN 산하 최 고위직에 올라, 국가 원수와 같은 자적인 이종욱 총장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에 능통하며 불어와 중국어를 해독하는 실력을 갖추었다. 그는 결출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WHO 역사상 가장 정열적으로 헌신한 사무총장으로 인류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애를 바쳤다.

그는 제네브에서 직무수행중 뇌혈전 증세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61세로 영면하였다. 21세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 지도자 이종욱 총장이 졸지에 떠나서 애석하기 이룰데 없으나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민인의 가슴속에 영원히리라.

고인의 유해는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며 유족으로는 영부인 Kaburaki Reiko 여사와 미국 유학중인 영식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고 이종욱 서울의대 동창을 애도하며- 오태희(64)

## 방송뉴스에 잘못 보도한 의학스토리 5건

Story Description	No. of Media Markets	Times Aired	Households, Million
Breast self-examinations may not be useful	26	40	45
One third of Americans are obese	23	30	36
Lumpectomy as effective as mastectomy for treating breast cancer	21	24	31
Duct tape is effective for wart removal	19	23	30
Warning against wearing decorative contact lenses	18	22	36

-출처: FDA-

<전면에서 계속> 없는 환자여서 그 결정이 순수하고 단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대답을 끝내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면 어려운 시대를 거치며 고생스러웠던 때도 많았고 또 수련 기간의 생활도 힘들기 짝이 없었으나 이런 것은 당신 세대와 의사라는 직업이면 누구나 다 거처간 것이니 굳이 입에 올릴 것도 없고 단지 사람스럽고 존경스러운 아내를 인생의 반려자로 만나 삶을 함께 해 왔고 또 두 자녀가 잘 자라 떳떳한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서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며, 30년이 넘는 기간을 큰 실수없이 high risk field에서 high quality, high volume practice를 해 오며 re-do open heart surgery 때 사용하는 oscillating saw를 개발하고 또 off-pump CABG 기술을 개척 발전시켜 1999년 The Society of Thoracic Surgeons의 Annual Meeting에서 발표하여 임상자들은 몰

론 많은 academician들이 놀라며 이를 때워 받아들이는 것 등에서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며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두 어 시간도 넘게 시간을 내 주셨는데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일어서질 않고 꾸물 거리는데 "저녁식사나 같이 ..." 하고 이야기를 꺼내신다. 엄청 바쁘신 분께 시간도 늦었는데 "고맙습니다만..." 하며 사양해야 마땅한데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입에서는 열치불구, "아이고 이거 참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튀어나오며 땀방울 따라 나갔는데 시원한 냉면에 갈비까지 없어 배를 채우고 나니 그때야 비로서 이거 내가 너무 주책없이 굴었구나 하는 생각이 난다.

선생님 내외분 항상 건강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집착제는 빠른 시간에 크게 성공하시어 더 많은 사람 살려내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그린 프로젝트 코너

동형근(57) 전회장님의 강권에 못이겨 Green Project Committee를 맡게 된지 벌써 6년째 됩니다. 후배들에 대해 특별히 애뜻하거나 사명감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동창회 행사때 조금 뒷자리로 옮겨 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마약이라도 취한 듯 흠뻑 빠져 버렸습니다. 몇몇 선배님으로부터 "자네는 왜 선배들 공경할 생각은 하지 않고 후배들만 챙겨 주고 있냐?"고 핀잔을 받기도 했지만, 동창회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조형기(92)동문은 현재

UCSF 마취과의 스태프로 근무하고 있고,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는 의학도들의 필독서로 알려진 (의료유학가이드)의 저자로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판의 공저자인 강현석(2000)동문도 Green Project Committee에 빼 놓을 수 없는 소중한 멤버들입니다. 이번 summer convention에 참석못한 대신 "Green Project"의 당면 문제점들과 해결방안 등을 선후배님들과 시계탐을 통해 풀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올렸습니다.

-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

## 그린 프로젝트에 관한 중간보고서

조 형 기 (92 샌프란시코)

### 1. 서문

여러 선배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대로 그린 프로젝트는 한국에 있는 서울의대 후배들이 앞으로 미국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동문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여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의 활력을 도모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동문회원 분들이 직접 간접적인 도움을 주셨고 또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기에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과정중에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어려움이 나타났기에 이런 자리를 빌어 그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선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빌려주시고 또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신다면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의 발전은 물론 한국에 있는 어린 후배들에게도 새로운 큰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본인은 물론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큰 도움이 될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2. 배경설명

현재 그린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의대 후배들의 미국진출에 대한 주변의 기본인식을 바꾸고 적극 홍보하여 한국에 있는 다른 동문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한국의 일부 동문들께서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인재들은 국가의 세급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은 유능한 한국의 인적자원이라서 혜택만 받고 졸업후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과 의학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서울의대에서 교직에 계신 일부 동문들은 이를테면 후배들이 방학중에 미국연수를 신청했을때 그 기간이 학기중 혹은 각 과별로 임상실습을 하는 날짜와 단 하루도 겹쳐서는 안된다는 식의 비협조로 사기를 꺾어 놓고, 또 은연중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테면 서울의대에 졸업후 미국진출을 위한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모임 같은것을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데 대놓고 가입했을때 일부 교수님들의 눈밖에 나서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동료들로부터 이기주의적이라는 오해를 받지않을때 두려워 하는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활동을 통해 차차 분위기가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이번 여름 컨벤션 동안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왕학장님께서 앞으로 의대생들이 3주 혹은 그보다 긴 기간동안 미국연수를 하고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기

쁜 소식을 전해주셨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발전이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연세의대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재학생들의 해외 의대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왔으며, 현재 한국의 많은 의대생들이 졸업이전에 일정기간 해외병원에 연수하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다녀 오기 때문에, 약간의 간접지원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 한국의 서울의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하고 기대하는 부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대로 해외진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유능한 서울의대의 인재들이 졸업후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라고 근시안적으로 해석할것이 아니라, 마치 앞에서 잣 태어난 연어새끼들이 큰 바다에 방류되어 지내다가 결국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듯이, 그들이 가진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마련하고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서울의대의 이름을 높이고,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의학발전의 또다른 저력이 될수있다는 것을 동문들이나 재학생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학기간중의 해외연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해외연수 한번 나왔다고 그들이 모두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미국에 진출에서 여기 살겠다고 마음먹게 되는건 결코 아닐겁니다. 하지만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진 동문 후배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에게 한국과는 다른 의료여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충격이 되어 그들이 장래에 한국에 남아있던 미국에 진출하건 간에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겁니다. 그리고 마치 회사에서 영업차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무료 시식회 같은것을 하면 그중에서 새로운 고객들이 생겨나고 결국 고객층이 넓어져 매출이 증가하듯이, 서울의대 후배들에게 재학기간중 해외연수가 보편화되도록 만들어 많은 이들이 미국의 의료환경에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중에서 미국진출을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후배들이 많이 나올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서울의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학장님께서 언급하신 3주도 아주 부족한 기간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다면 학생 본인이 원한다면 6주, 길게는 두달까지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수기간을 정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평가는 pass or fail 제도로 하여 주눅들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수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금상첨화이겠고, 또

그 기간을 고정해 놓지 말고 가급적 연수나갈 병원의 형편에 맞도록 조정 가능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금상첨화일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미국 의대에서 2006년 7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금요일까지 5주간 실습을 해야 하는데, 서울의대의 어떤 학과에서 9월 1일부터 학기 시작이고 실습시작이니까 허락이 불가하다고 단지결고 나오면 결국 해외연수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겹쳐도 개인의 학사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재량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의료보험 (Malpractice Insurance)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의 모든 의대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재직하고 있는 UCS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대의 경우 해외 의대생을 받아주는 학과가 마취과와 방사선과 정도인데, 마취과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리 백만달러를 커버한다는 보험증서를 제출해야만 연수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한국의 의대생들은 지레 포기해 버리고 그 빈자리는 카리비안 의대생들이 주로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학교차원에서 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다면 3개월 혹은 6개월 커버하는데 대략 5백-천달러 정도 들텐데, 돈도 문제이지만 그런 보험회사를 찾는것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니 가능하다면 서울의대에서 한국의 보험사들과 협의해 의대생들을 위한 저렴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면 해외연수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무척 넓힐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액수가 10억(백만달러)씩이나 되기는 하지만, 의대생들이 실습와서 하는건 대부분 견학이고 잘해야 IV나 아주 간단한 시술 정도인데 이들이 무슨 소송에 연관될 위험성은 극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산정해도 그리 비싸지는 않을겁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게 순리일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포장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한 효과를 가져올것로 기대합니다.

### 4. 재학중인 혹은 졸업한 서울의대 후배님들에게 드리는 말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자발적으로 의대안에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에 있는 선배들이 공식적으로 나설수 없는 문제이고, 또 학교내에서도 누구도 뭐라고 간섭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미국에 있는 선배들과의 연결체널도 보다 활성화 될것이고 또 여러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의 선배님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도움과 지원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다만 동아리의 이름이나 목표가 단순히 USMLE 시험준비라던가 혹은 졸업후에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 뿐이라면,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줄이는 것뿐 아니라 원치않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니, 이를테면 미국 임상연수동호회 정도로 하면 좋을겁니다. 그러면 재학중에 미국 임상연수를 다녀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겁니다. 또 앞으로 3주 혹은 그 이상의 해외연수가 보편화 되어 나가면 동아리 모임도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갈겁니다.

후배님들이 미국에 있는 서울의대 동창회 모임과 관련해 알고 계셔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배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많은 도움을 주려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직접보다는 간접 지원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 안해도 선배들이 나서서 연수자리 마련하고 비용 모두 부담할테니 그저 몸만 외주지만 하면 된다며 밥상을 차려주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뜻입니다. 후배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렇기에 더욱 그러한 방법으로 잘못된 사람을 배출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힘든 과정을 거쳤을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며, 크게 보았을때 당장은 써도 그편이 후배님들에게 약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배님들이 미국 연수나 혹은 다른 기회를 통해 한국과는 그 분위기가 많이 다른 미국의 의료환경을 접하고, 또 그 장점과 단점을 몸으로 겪으며 배우면서 얻게되는 경험은 다른 모든것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후배님들의 미래에 농사의 거름처럼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겁니다. 다만 여기 미국에 미리 진출한 선배들 입장에서 기대하기로는, 한국에는 아직도 머리 좋고 똑똑한 인재들이 넘쳐나는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미국에는 이곳에 살고있는 한인들의 숫자에 비해 한국어를 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그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마치 경작하지 않은 넓은 처너지처럼 앞으로의 가능성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미국 진출을 한번 고려는 해 달라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단기간이라도 미국 연수를 왔을때 그런 가능성을 모색해 보면 좋을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판단이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거꾸로 미국의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무슨 다른 뜻이나 의도가 있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부모자식간에 사랑이 지나치면 마치 자식이 부모의 간절한 부탁에 못이겨 효도차원에서 하기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주는 것으로 잘못된 상황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의 해외 임상연수와 해외진출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노력이고 투자임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지나친 기대 때문에 어쩌면 서로 실망하는 일을 막고 Win-Win 게임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겁니다.

### 5.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  
우선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밑에서 실무진으로 일하는 저와 강현석 후배를 비롯한 다른 신참 후배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서인석 선배님과 회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 선배님들에게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주셨으면 하고 다만 옥에 티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린 프로젝트에 할당되는 예산액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는 예정된 예산이 예정된 기간내에 집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환수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다음해 예산배정에서 금액이 삭감되어 버리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융통성을 허락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집행 내역에 관해 너무 많은 제한이 있거나 허가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

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의 집행절차는 유리할 처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 원칙은 분명하나 그 범위내에서 유연성도 함께 갖춘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어떤식으로 후배들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후배들 본인에게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주 서울대 동창회에 가장 도움이 될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후배들의 미국 임상연수를 여러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중에서 미국에 정착할 생각이 있는 후배들을 위해 그 과정중에 꼭 필요한 마지막 단계인 미국 의사고시 3차시험 (USMLE STEP 3) 시험비용을 지원해주고 또 한국의 서울의대 등아리 운영비용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배님들께서 어떤 고견이 있으시다면 경청하셨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주소는 [putsleep@gmail.com](mailto:putsleep@gmail.com) 입니다.

사정이 이렇기다 보니, 또 예산집행

의 범위가 졸업생 재학생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보니 걸리는 것도 많아 현재 매끄럽게 예산을 집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요도 많고 돈 쓸 곳도 많은데, 지금 당장 처음 셋업과정중에 있고 나중에 행여나 어떤 형태로든 돈 문제나 혹은 영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단시일내에 예산집행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린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금은 일종의 기금형태로 적립해서 마치 장학재단처럼 정해진 범위 이내라면 매년 필요에 따라 수혜 대상자의 숫자와 그 지원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어떨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의사고시 3차 시험 하나만 해도 매년 같은 숫자의 후배들이 시험볼거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고 연수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 후배들의 인성 평가를 할수 있는 시간을 두고 결과적

으로 보다 적격자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처음에 한번 좋은 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차차 예산 규모를 늘려나가면 기대하던 효과가 극대화 될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6. 맺음말

이것저것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팀에서는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 고마운 선배님들과 그분들의 높은 뜻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 가진 지혜가 많이 부족하고 그분들 만큼의 인생경험이 없으니 혹시 어떤 조언이나 제안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어 미국 서울의대 동창회도 더욱 발전하고 아울러 많은 젊은 후배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교에서 온 답글

\*\*\* 조형기 선생의 글에서 본교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본교 교수들이나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대단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elective course로 미국 혹은 기타 외국의 대학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대학들과 이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global 시대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보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미주 동창회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학교 행정을 맡은 입장에서 힘이 납니다. 참고로 조형기 선생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느낀 점을 적습니다.

-적어도 최근 수십 년 동안 서울의대에서 해외 진출 학생들에게 격려를 하면 하였지 이를 두뇌 유출이라 하여 막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학생들에게 적극 격려하였습니다. 또 그것이 미국에 한국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의대 자체 장학재원의 일부 내지 상당 부분을 학생들이 해외에 안목을 갖게 하는 데에 썼으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고 마는' 장학금 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년 후가 되면 살만해지므로 어려운 학생 시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도록 대출 장학금 (단, 학부학생 기간 중에는 이자를 학교에서 내줍니다.) 제도를 이용하고 그 결과 생기는 여유의 재원을 우리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살리는 데에 사용하였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해외로 진출하는 학생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인턴만 해도 될 한데, 전공의 과정을 시작하고는 곧 미국과 연결이 되어 전공의 과정을 중단하고 (특히 1년차 초기에) 도미하는 경우입니다. 과의 크기가 커서 전공의 한 사람 빠져도 관찮은 경우도 있겠지만 전공의 정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도중에 사직을 하면, (법적으로 이미 전공의를 선발한 후 그 전공의가 도중 사직한 경우 그 정원을 다시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진료 과 입장에서 전공의 선발에 있어 당연히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료 과에 따라서는 전공의 과정 도중에는 도미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남은 어떻게 되건 내 사정대로만 살겠다는 것이지요.

-해외 진출 예정자들이 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학생들의 취미활동, 봉사활동, 학술활동 등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형성하는 것은 좋지만, 내과 할 사람, 미국 갈 사람, 교수 될 사람 등을 표방하는 동아리는 곤란합니다. 다만, 북미(또는 해외) 의료/의학 연구회 등은 가능하지요.

-미국에 가서 금년 4학년부터 6주간의 elective course가 있고 pass or fail로 학점을 줄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도중에 3주가 되었네요. 하긴 3주씩 2회로 나누어도 됩니다.

-서울의대 수업과 미국 견학과 겹치는 문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요. 임상 실습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교실에서 허락을 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해당 교실에서 허락을 하도록 권장할 수는 있지만 감요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권한 밖이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서울의대의 권위주의라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더욱이 내가 미국에 다녀와야 하니, 졸업시험도 따로 보겠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외부에는 '학교에서 따지를 거는 것'으로 설명되는 모양이네요. 학교와 미주동창회가 직접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보증을 들어주는 것은 아직 우선순위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하여 집단적,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매우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견학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을 없애면서 꼭 그 병원에 견학하도록 자원을 몰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일전에 연락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대 99학번이고 현재 코네티컷 주에 있는 Danbury Hospital에서 내과 2년차 수련 중입니다. 2007년 6월에 수련마치고 나오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왕이면 한국분이거나 선배님들 중에 파트너 구하시는 분이면 거기에 소속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소망입니다. 부탁하나 드려도 되겠는지요. 제가 여기 제 CV를 첨부드리오니 동창회지 혹은 모임 안내서에 광고를 내어 주실 수 있는지요? CV 안에 제 기본적인 소개는 있지만, 필요하면 더 자세한 내용 적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zlotti@hotmail.net](mailto:zlotti@hotmail.net) / (203) 482-7557

2.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2학년에 신재훈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의대 유학동아리라는 곳을 만든다고 해서 관심있어 담당자 분께 연락드렸었는데 그 동아리를 선생님께서 맡고 계신다고 연락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서울대 공대 화공과(생물 화학 공학부)를 2004년에 졸업하고 바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Biotech 방향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으나 저희 과가 Bio쪽이 좁약해서 의대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입학할 때 기초를 하겠노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뭘 하든 연구를 하고 싶

지난 몇년간 후배 동문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들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위의 조형기(92)동문의 글에서 강조했듯이 미국 유학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직접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접지원 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문들도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의대 공부에 적성에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방학 때 실험실 나가는 것 같은 일)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1년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대 본과 3학년 신재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교 프로그램 중에 본과 4학년 여름(2007)에 6월 5일 경부터 8월 15일 정도까지 선택 학습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선배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선배님은 하버드에 4주간인가 실습 도는데 4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실습을 돌던 실험실에 나가던 무엇을 하던 간에 그 곳 경험도 하고 언어도 쓰기 위해서 일단은 그 기간을 미국에서 보내고 싶는데, 제가 아는 바가 많지 않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고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의대 같은 경우는 임직원

개인적으로 모르는 외국 학생은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혹시 선배님께서 아시는 제가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혹은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선배님 바쁘실텐데 이렇게 귀찮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3.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신경외과 실습 때문에 일주일간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 있느라 조금 바빠서 부탁하신 것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와 같은 학년인 김지혜는 겨울에 국가고시를 끝내고 한달 정도 미국에 가서 병원실습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어디로 갈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그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라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미네소타의대에 계신 선생님들 몇 분(Dr. Peterson, Dr. Quie, Dr. McGlave, etc.) 이 제게 호의를 갖고 많이 도와주셔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schedule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7월 19일)에 미네소타에 도착할 예정이고 미네소타 의대 병원 (Fairview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내과 감염분야에서 3-4주간

rotation을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레지던트 선발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meeting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새로운 경험을 하러 가는 것이라 탐험을 떠나는 기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평가를 받으러 가는 것 같아서 다소 긴장이 됩니다. 미네소타에 도착하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P.S.)

Rotation을 위해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혜자가 미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습을 하고 돌아왔다는 확인서 같은 것을 미주 동창회 쪽에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악의 대학본부에서 연수 지원금을 줄 때에도 사전에 rotation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 제출과 다녀온 후에 보고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임상실습에 대해 많은 친구들이 제게 문의를 해 오고 있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영어실력이나 적극성이나 계획정신이나 실제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등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큼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곳에서는 아무리 학생이 연수를 원하고 \$3,000/4 weeks에 달하는 수업료를 가까이 내겠다고 해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영어실력이 부족하면 연수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장학생 선정때 미주동문회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6 하계 학술대회를 마치면서

행사준비위원장 권 정 덕(64 대뉴욕)

서울의 대미주동창회의 하계학술대회가 예정대로 6월 25일부터 29일 까지 4박 5일 동안 뉴저지의 아틀랜틱 시티에 있는 Taj Mahal Resort Hotel에서 거행 되었습니다.



최준희(64) 회장

며칠 전부터 꾸물거리며 다가오는 폭풍이 뉴욕,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를 감타 한다는 일기 예보에 마음을 조리며 시작하여 1941년 졸업하신 이규용 선배님부터 2002년 졸업한 손세일 동문, 미국 전역에서 오신 미주 동문들과 바다 건너 시간과 경비를 부담하시며 한국에서 오신 6분의 동문들과 미주 동문의 미망인 2분을 합쳐 총 123 동문이 참석하여 대가족 230여명이 Taj Mahal의 넓은 시설, 아틀랜틱 시티의 boardwalk, 등을 즐기며 비 한방울 안 맞으며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미주 동창회를 격려 응원해 주시려고 와주신 하권익(63) 서울의대 총동창회장, 윤정철(66) 길병원 부원장, 성상철(73) 서울대학교 병원장, 왕규창(79) 서울의대 학장, 엄익부(64) 동창회 재정 경리 부회장, 이근식(64) 동창회 감사 및 동창회를 잊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신 미망인 미세스 박성유(62)와 미세스 민현(61), 또 부모님의 의대 동창회에 참석한 2세와 그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돌아보면 이번 학술대회는 2005년 9월부터 매달 모이면서 시작된 준비의 결실이었습니다. 미주 동창회장으로 선임되어 일기에 들어간 동기 최준희(64) 회장의 부탁 반, 임명 반으로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직책을 수락한 후 강행군 스타일의 서인석(73) 총무의 제안으로 깨달 모였습니다. 소규모 이사회를 겸한 이 모임에서 처음에는 11월에 거행된 annual ball이 주 의제로 시작되었고 annual ball 이 끝난 후에는 하계 학술대회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Scientific session은 경험이 풍부하고 동창회 학술대회를 위해 여러 번 수고하신 최영자(66)동문이 맡아 주셨고 Non-CME(so-called spouse program) session은 최 회장 부인이신 미세스 최준희께서, 뉴욕지부 회장 부인 미세스 오용호(72) 등의 도움을 받으며 동문서주 하셨습니다. 고전의 '남존여비' 사상에 의하여 음식 메뉴도 이 분들이 담당 하셨습니다.

이 행사에 과거 어느 시절에는 주 행사이었던 골프는 제가 주관하여 골프 코스 등을 선택하였고 학술대회 장소는 세계 여행을 통하여 얻은 information을 주로 하여 Taj Mahal, Borgata, Sheraton 등을 실제 답사하여 all room oceanview인 점과 비교적 저렴한 방값인 Taj Mahal(\$115 per room per night, Borgata \$250, Sheraton \$150)로 정하고 우선 예년보다 조금 많은 130개 방을 단체로 예약해 놓았습니다. 예약 마감 한달 전 즈음에는 오직 80개의 방만이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최 회장과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하시겠다는 의향을 비치신 분들의 명단을 만들어 Taj Mahal의 컨벤션 매니저와 세일즈 매니저의 도움으로 매일 예약된 방의 수를 체크하며 몇 개의 Stent가 들어 있는 제 심장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약 마감일인 학술대회 시작 한달 전에는 118개의 방이 예약 되었고 그 때

까지도 예약을 아니하신 몇 분의 역대 회장님들을 포함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나머지 12개의 방을 예약하여 놓는 등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창회 사무실을 도맡아 살피는 김혜경 여사의 도움으로 preconvention registration을 일일이 체크하여 결국 예년의 70% 선이었던 학술대회 전 등록이 91%(예약된 호텔방 수와 비교)라는 양호한 성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미리 등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 결과는 수없이 동문들께 전화를 걸어주신 최준희 회장의 노력과 인터넷 이메일의 위력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민경탁(66)동문에게서 왜 우리 동창회의 학술대회는 판에 박은 듯한 CME, non-CME 그리고 골프로 반복 되어야 하는지는 이메일을 받았습니 다. 캘리포니아에 계신 닥터 민과 이메일이 오고 가는 동안 예년에 없었던 컴퓨터 반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class의 부작용으로 골프 shot gun start의 최소한의 숫자인 80명의 숫자가 제 나이가 평균 연령인 동창회 회원들의 노령화와 더불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권정덕(64)행사준비위원장

이 Class를 organize 해주신 민경탁 동문과 주 초청 연사이신 강수상(53) 동문을 위하여 시카고에서 오셨던 김길중(66)동문이 컴퓨터에 조예가 깊은 최(?)로 임시 사무실과 회의장의 모든 컴퓨터에서 생긴 문제를 그때 그때 해결해 주신 것은 물론, 보람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scientific/CME session에서의 강의 내용이 우리들 대다수가 나이 먹어 가는 과정에서 직접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모두 알찬 내용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듯 적절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여름 시계 탐에 나간 연사 초청 광고에 아주 적은 수의 호응으로 프로그램을 맡았던 최영자(66)동문이 잠깐 마음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문들의 자제/2세 들의 참여로 나중에는 넘쳐나는 연사들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세들의 강연은 새로운 지식은 물론 엑센트가 하나도 없는 유창한 영어로 하는 강연에 귀가 더 뚫린 듯, 두뇌가 명석해 지는 듯, 속속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으며 언어 장애 등 고생했던 이민 일세인 저희들에게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강연 중 자기의 어릴 때 사진을 보여준 이유찬(64)동문의 말 아들 Dr. John Rhee(Wisconsin Univ.)의 강연을 보며 저렇게 조그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 의젓하게 강단에 서서 강연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던 제 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scientific/CME session의 강연 주제 선택과 연사 초청 등 심혈을 기울여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나간 최영자(66)동문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Non-CME/spouse program에도 여러 가지 수준 높은 그리고 흥미 있는 주제가 많았습니다. 강연 도중 자주 있었던 웃음소리, 박수 그리고 강연 후 많이 배웠고 즐겼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컴퓨터 반에 들어 가려면 골프를 못치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민경탁, 김길중(66) 두 동문이 주관한 컴퓨터 반은 첫 날에 예상을 뛰어넘는 참가 인원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 혼잡이 있었지만 둘째 날 부터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조금 틀어 잡혀 진행이 쉬었습니다. 우리 모두 학창시절에 모르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최신 기술을 따라가려는 열정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충부한 강의 경험과 정확한 지식의 명 강의를 해주신 미세스 서인석의 'life support'는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주제이기에 CME session에 넣어도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세스 최준희(64)와 미세스 박희명(67)이 주관하신 미술 전시회에는 자동차에 가까스로 실으셨다는 대폭 유희를 비롯하여 미세스 임영신(58), 미세스 김영곤(67), 미세스 박희명(67), 미세스 문광재(68), 미세스 심완섭(73)의 화폭, quilt 등과 정준희(72)동문의 서예 등이 한 방에서 또 이정은(64)동문의 100여 점이 넘는 예술 사진들이 다른 방에서 전시 되었습니다. 이정은 동문은 제 동기로 병리 전공이면서 뒤에서 열심히 만들어 주시는 미세스 이정은과 1월 달에 회장단과 현지 답사까지 하여 계획하는 열정을 보인 반면 부부 이중창을 보여주는 예능에 재능이 돋독한 친구입니다. 이 여러분의 수고로 멀리 가지 않고도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신 예술에 대한 재능과 열정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첫날(6월 25일) reception 시간에 미술/사진 전시회의 개막식(ribbon cutting)이 있었습니다.

골프 이벤트에 대해서는 하늘의 깊 은 돌보심을 느꼈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3주에 흥수가 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바빠서 일기 예보나 뉴스를 들을 틈이 없었기에 나중어야 비 한 방울도 맞지 않고 3일간 연속 골프를 칠 수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주위를 감탄한 폭우가 아틀랜틱 시티를 살짝 피해 갔던 것입니다. 최준희 회장과 농담 반으로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마 동문들 중에 박세록(63)동문을 비롯해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를 받는 여러분의 덕택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6월 26일은 Harbor Pines Course, 27일은 Blue Heron Pines, 마지막 날(28일)은 Harbor Pines Course에서 tournament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될 수 있는 한 동기들과 치도록 조를 짜 드렸습니다. 그러나 매년 경험한 듯이 98명 예정에 112명, 80명 예정에 94명으로 조그만 혼란이 있었던 것, 세도하는 개인적 주문에 인성이 높아졌던 것 등 지면을 통하여 사과 드립니다. 마지막 날 토너먼트에는 110명 예정에 122명이 참가하는 열심으로 열심히 많

이 치셨습니다. 그 중에 남자 메달리스트에 78타의 이인수(66)동문, 여자 메달리스트는 82타의 미세스 김충규(66)를 비롯 남자 Net 1위 이상무(62)동문, 2위 이계석(73)동문, 장타상에는 김천일(73)동문과 근접상에는 정진우(72)동문이며 여자 Net 1위 미세스 정진우(72), 2위 미세스 이계석(73), 여자 장타상에는 미세스 송관호(64)들이 상을 탔습니다. Net score는 캘리웨이 방법으로 했으며 저와 같은 동네에 산다는 별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고해 주신 민발식(66)동문과 임용규(69)동문께 감사 드립니다.

첫 날 학술 프로그램에는 왕규창 서울의대 학장님의 한국 의학 교육제도의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책과 이념의 변화에 따른 의견 대립으로 여러 대학들이 어떻게 토론했고 반대했고 또 타협해 왔는지 그 과정을 정리하여 강연하여 주셨는데 neurologist인 왕 학장님께서 교육 행정에 뛰어난 안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서울 의과대학의 장래에 대해 든든한 마음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하권익 모국 동창회장의 'consumer satisfaction'에 대한 강연은 환자와 병원 직원 또 거래하는 vendor들 까지도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말씀하시니까 humor가 가득한 강연이면서 가슴에 들어오는 감격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 초청연사이신 강수상(53) 선배님의 출기세포에 대한 강연 'Cloned embryo-derived stem cells and regeneration medicine'은 시대의 첨단을 걷는 내용이었으며 연세와 졸업학년에



총무 서인석, 학술위원장 최영자, 최준희 회장

비해 너무 정정하시고 정력적이시고 겸손하신 인품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학술대회에 종종 나오셔서 동문들에게 최첨단 지식을 가르쳐 주신 노고에 감사과 증정이 있었습니다.

Non-CME session에서는 동기인 이재종(64)동문이 피부 미용에 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졸업 후 타과를 지망한 전문의들이 몇 년 후면 피부과로 전향 한다는 최근 통계와 같이 인기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이번 행사를 위해 보내주신 피부 Cleanser와 거품의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첫째 날 저녁 프로그램으로 소규모의 연사들을 위한 리셉션이 있었으며 동기 동창들이 각 기마다 모여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습니다. 저희 동기(64)는 국 내외에서 28명(가족 포함 50명)이 참가하여 최 회장과 저를 도와 주었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직접 학술대회에 참석한 동기들과 사정으로 못 왔지만 멀리서 보내준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특히 먼 캘리포니아에서 혼자(독신) 참여하여 후한 기부금을 내어 준 이홍표 동기, 한국에서와 몇 일 동안 동기들이 다 챙겨주어 덕분에 돈을 쓸 기회가 없었다고 1천달러를 동창회 기금으로 써 달라고 신통



내놓았던 언덕부 동기에 감사 드립니다. 예전 옛날 옛날에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우정 때문이긴 하나 40년 이상이 지난 이때에도 호텔비, 골프 그리고 체재하는 동안의 교통편의 등을 서로 부담하겠다고 좋은 뜻의 말다툼까지 하는 것을 보며 두터운 우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은 Talent show night 이었는데 예년과 같이 양찬기 동문의 능란한 사회로 진행 되었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기 전 미세스 한용현(48)/박경희 여사의 피아노 독주가 큰 울림을 멋있게 채워 주셨고 이어서 많은 동문들과 자녀들까지 동원되어 노래, 춤 그리고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습니다. 결과로 단체 상으로는 64년도 '악당' 3쌍(송관호부부, 조성준 부부, 최준희 부부)의 '뉴욕 뉴욕'의 브로드웨이 쇼가 1등을 했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 한 부부당 3백 달러를 들이며 열심히 연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장이 틀리는 바람에 손



사진 및 그림 전시회를 관람하는 동문 부부들

발이 맞지 않는가 하며, 한국에서 온 동문들 손님을 치루다가 퍼렇게 멍든 발목에 침까지 맞아가며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신 미세스 송관호 등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66년 동기들은 학술대회에 참석한 모두가 나와서 전날 동기 모임에서 이명희 동문의 기획 연출로 3달러 짜리 목도리 같은 형식으로 허리를 맨 동문들이 원형으로 둘러서서 가운데서 열창한 정양수 동기의 타령에 맞추어 덩실 덩실 춤을 추는데, 부인들은 한 줄로 서서 박수로 장단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날 즉석에서 계획하여 단체로 출연한 66년 동기들의 기발한 착상에 다시 한번 감탄하는 바입니다.

개인상 1등은 이정필(64)동문 가족의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피아노의 현악 3중주, 2등은 미세스 주성분(64)의 한국 고전 무용이었는데 어떻게 신비롭고 가냘프게 매력적으로 춤을 추시는지 모두 숨을 죽이며 보았습니다. 3등은 이운순(58) 부부의 성악과 피아노 반주였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이 미리 준비 응모한 것과 즉석 참가로 수준이 높아진 멋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미세스 최준희께 또 한번 감사 드립니다.

프로그램 중간 중간, 또 참가자의 주요 독창 중에는 양세일과 그 악단에 맞추어 거의 전 참가인원 199명이 나와 특별히 넓게 준비한 무도장을 꽉 채우며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미리 예약하신 분이 173명이어서 180명을 예약했는데 마지막에 202명이 되어 매일 수고하시던 사무장 미세스 김혜경 부부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일이라기에 동문들의 협조로 장래 학술대회에는 미리 마음을 정하셔서 등록하시는 아량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날 밤은 여러가지 공식 행사가 서인석 총무의 진행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예년 행사대로 서울의대 교기가 선두로 들어오고 학장님, 동창회장님, 현 재미 회장단이 들어온 후 이운순(58)동문의 선창으로 모두 일어서서 "가슴마다 성스러운....." 교가를 합창하였습니다.

매년 참석자중 제일 어린 동문이 교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왕규창 학장님이 79년 동문으로 가장 어린 동문이었으나 우리가 젊은 학장님을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미주 동창회의 노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차마 학장님께 교기를 들고 들어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 왕규창 학장님의 형님이신 왕규성(75)동문께서 교기를 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대 미주 동창회장중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은 이규용(41), 한용현(48), 강수상(53), 노용면(55), 정구영(57), 이만택(58), 이운순(58), 민병덕(59), 한성업(59), 이재승(61), 이희경(61), 정정수(62), 조한원(63), 한기현(63), 송관호(64), 이한중(65) 이었으며 졸업 50주년을 맞으신 56년 동기로서는 이연찬 동문이 참석 하셨습니다. 지난 6년간 학술대회에 개근하신 동문은 정구영(57), 이재승(61)이었습니다. 하권익 총동창회장의 축사와 현 재미 동창회장 최준희 동문의 지난 1년간의 회고와 전 회장단에게 수여하는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는 조동준(64)동문의 새로 시작하는 1년의 새로운 구상을 포함한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장장의 공식행사를 마치고 10시가 조금 넘어 양세일과 그악단, 그리고 또 양찬기(63)동문의 사회로 여흥 순서에 들어 갔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오래 걸린 공식행사 때문이지 이재명(66)부부의 ballroom dance 시범이 있었지만 일어서서 동문들이 서성거리는 탓에 뒤에서는 ballroom dance의 진면목을 관람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동문들이 나와 춤을 추어 아쉬움을 남기고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 중 2001년에 마지막으로 주소록이 나온 뒤 Directory 2006,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가 개칭된 내용을 담은 산뜻한 표지로 참가한 동문들께 배포 되었습니다. 이를 편찬한 위원들과 특히 수고하여 주신 이성근(66) 동문께 감사 드리며 주소록 광고 협찬과 이번 학술대회에 후원기부금을 내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 한국에 계시다가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일부러 일정을 바꾸어 미국에 돌아오셔서 scientific session에서 강연해 주시고 자신의 malpractice case를 주관적/객관적으로 분해하여 수 년에 걸쳐 집필하신 우준균(67)동문의 저서 'Split Verdict'가 소개되었습니다. 개연의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며 저렴한 가격 10달러에 동문들께 판매하여 판매된 금액 520달러 모두를 동창회에 기금으로 써 달라고 기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정을 바꾸신 노고와 기부금에 감사 드립니다.

예를 사진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작품의 판매 이익금을 전부 동창회에 기부해 주신 이정은(64)동문께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학술대회 일정이 끝난 다음날 29일 아침 7시에 현(구) 회장단과 차기(신) 회장단의 인수 인계가 있었으며 우리의 경험을 요약하여 차기 회장 조동준(64)동기, 총무 김홍서(69) 그리고 학술대회장 정균희(72)동문들께 지난 일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but not the least, 최준희 회장, 서인석 총무, 송관호, 최영자 준비위원들이 매달, 또 최근에는 매주 만나 수고 하였지만 지난 1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잡 못이루며 보이지 않게 동문서주 하신 미주 동창회장 부

## 함춘희가 경험한 하계 학술대회의 이모저모

함춘희장 Mrs. 최준희(64 대뉴욕)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가 주최하는 연례 하계 학술대회에는 흔히 scientific session과 golf outing이 주축을 이루고 spouse program은 간단한 덤으로 진행 되어 왔던 것이 상례였던 것으로 기억 된다. 하지만 금년에는 spouse program 이 조직적으로 계획 되었으며 질적으로 우수하여 많은 spouse들이 즐겼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동창회원들도 청중의 일부를 차지했다. 특히 이선영(미세스 이태안 '67) 박사의 video art presentation은 아마추어의 경계를 지났고 국영순(미세스 이병희 '66) 선생의 가곡 부르는 피아노 반주를 해주신 미세스 한용현(48)과 더불어 많은 spouse들이 개인 지도를 원하는 정도의 인기 절정으로 반장의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미세스 서인석(73)의 CPR 강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습을 통해서 장장 1시간에 걸쳐서 모든 청중이 숨을 죽여 가며 들은 명강의였음을 지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닥터 이재중(64)은 skin care 강의와 skin cleanser 샘플을 선물로 주어 더욱 많은 spouse에게 인기가 있었다. 닥터 정균희(72)의 서예 강의는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큰 붓으로 실습한 특별한 workshop 프로그램이었다. 또 심장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닥터 정구영(57),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신 닥터 이용만(64), 'How to write'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신 닥터 오태희(64)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Art exhibition을 organize해주신 미세스 박희명(67)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painting, quilt 그리고 sculpture를 출품해 주신 미세스 임영신(58), 미세스 김영곤(67), 미세스 박희명(67), 미세스 문광재(68), 미세스 심완섭(73), 서예 액자 4점을 전시하신 닥터 정균희(72) 및 100 여점의 사진을 전시하신 닥터 이정은(64)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Talent show night에서 멋진 rumba dance로 시범을 보여주신 윤나승(66) 동문부부와 미세스 한용현(48)의 Hungarian rhapsody 연주는 프로의 경지에 이르러, 온 청중의 심금을 사로잡았었으며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신 데 감사사를 드린다.

미세스 이운순의 반주로 La Tosca의 '별은 빛나고'에 아리아를 독창해 주신 닥터 이운순(58)의 열창도 이번 탈레트 쇼에 특기 할 만한 것이었다. 임영신(58) 동문 부부의 댄스 시범은 노익장을 과시하여 소장파들의 분발을 야기하는 멋진 무대였다.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의 미세스 이

희경(61), 닥터 선우건영(63), 닥터 정구영(57)의 출연도 빼 놓을 수 없는 무대였으며 66년 동기들이 닥터 정양수를 리더로 남자들이 바지 위에 치마를 두르고 뽕과리를 치는 아낙네들과 함께 춤추는 '깜짝 쇼'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쪽소를 금치 못하게 하였다. 닥터 조경호(72)의 딸인 고등학교 11학년 Alicia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2곡을 불러, 탈렌트 쇼 사상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많은 감채를 받았다. 서울에서 오신 하권익(63) 동창회장의 재치 있는 만담과 노래도 청중을 사로잡은 것들 중의 하나였다.

64년 동기들이 team competition에 출전한 조성준, 송관호, 최준희 동문 부부들의 'New York, New York'의 댄스는 특이한 의상과 반짝거리는 모자로 많은 청중들의 인기가 대단해 그룹 1등 상을 탄 것도 기억 할 만 하며, 미세스 주성분(64)의 한국 고전 무용은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러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였고 또 이정은(64) 동문 부부의 opera duet도 빼 놓을 수 없는 특별한 출연이었다. 아들 David(urologist)와 더불어 동창회 사상 유래에 없는



접수를 받는 미세스 오용호(72)

가족 출연을 선보인 이정필(64) 동문 부부의 trio (piano, violin and cello)는 잊지 못할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닥터 박성민(64)은 언제나 고운 목소리로 '사랑해서 미안해'를 불러 주셨다.

마지막 grand banquet night에 특별출연을 해주신 이재명(66)동문 부부의 멋진 ballroom dance 시범은 휘황찬란한 의상과 더불어 관중들을 사로 잡았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끝으로 지난 7 여년 동안 저희 동창회 행사 때 마다 사회를 도맡아 해주신 닥터 양찬기(63)의 재치있는 사회로 이번 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치게 된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 spouse program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권정덕(64) 행사준비위원장과 지난 일년내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헌신적으로 도와준 뉴욕지부회장 부인 미세스 오용호(72)께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인 미세스 최준희와 이번 행사 때 모든 것을 전패하고 진행 본부석을 철저히 지켜 주시며 등록과 진행을 도와주신 뉴욕지부 회장 부인 미세스 오용호(72), 지난 6년 동안 동창회의 살림을 알뜰하게 맡아 보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행사 진행을 잘 마무리 하여 준 미주 동창회 사무장인 미세스 김혜경의 숨은 공로가 있었음을 여러분께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들 때문에 하권익 총 동창회장께서 축사 때 말씀하신 현 대판 남존여비(남자가 생존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추어야 한다.) 사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 회장단 이하 여러 부서 위원들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래도 미흡한 점, 또 차질이 있어 곤란을 드렸던 점 등 양해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인원이 적어 고생하기는 커녕 너무 많아 즐거운 비명을 지른 대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에 여러 가지 일을 다 제쳐두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동문들이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셨다는 것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이 학술대회를 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뒤에서 내조, 외조 해주신 spouse들께도 똑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급하면 하는 부탁에도 싫다는 말없이 글을 써주고 다듬어 준 'Speech writer' 이자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저의 반쪽 흥선경(64) 동기에게 감사의 정을 보내며 아무 사고 없이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신임회장 조동준(64)



미술/사진 전시회 개막식

# 23차 하계학술



원로 이규용(41)동문과 함께



리셉슨에서



리셉슨에서



왕규창(79)학장, 왕규성(75)부부, 방병기(73)부부



리셉슨에서 하권익(63)모국 동창회장, 성상철(73) 모교 병원장과 함께



58년도 졸업 동기



59년도 졸업 동기



63년도 졸업 동기



72년도 졸업 동기



73년도 졸업 동기



배성호(71) 오용호(72) 동문 부부



# 대회 이모저모



축사를 하는  
하권익(63)  
모국 동창회장과  
탈렌트 쇼  
사회를 보는  
양찬기(63)동문



탈렌트 쇼에서 대상을 받은 64년도 '뉴욕 뉴욕' 댄스팀의 모습  
송관호, 조성준, 최준희 부부



이재명(65) 부부의 댄스 시범



윤락승(66) 동문의 룸바댄스 시범



탈렌트 쇼에서 춤추고 있는 노용면(55)  
동문 부부 배경에은 추재옥 동문(63)



졸업 50주년 이연찬(56)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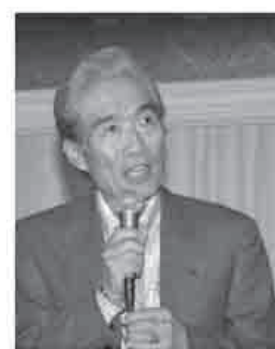


즉석에서 기획하여 전원 출연한 66년 졸업동기들



주성문(64) 동문 부인의 고전부용

탈렌트 쇼에서 흥겹게 댄스를 즐기는 동문부부들과 장기자랑을 하는 동문들





# 故 유준석 선생의 영전에 바칩니다

김 선 철(64 시카고)

제가 유준석 선생을 처음으로 뵈은 것은 1972년도 시카고에 다시 돌아와서 개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1978년인가 닥터 유가 저를 찾으시고 내가 동창회 일을 맡게 되었는데 도와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25여년동안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1979년 우리 교회가 Homewood baptist church에서 시작한 후 교회지원 회장을 맡으셔서 초창기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제 유준석 선생님의 소천하심을 슬퍼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8년이란 오랜 투병생활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동안 다섯번이나 대수술을 받으시고 그외에 많은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시면서 눈물겨운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주위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오랜 투병생활 동안 부인되시는 미세스 유는 보통사람이 가질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람과 인내를 보이시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간호를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역경속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아름다움과 애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유준석 선생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부인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친지들에게 한 번도 노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나 은근하고 마음이 훈훈하신 분입니다. 주위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과묵하시지만 대화를 좋아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입니다. 말하시기 보다는 듣기를 저 잘하십니다. 광범위한 독서를 하시고 여러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셨습니다. 특히 경제문제나 정치 사회문제에는 월등한 식견을 가지셨습니다. 병환중에도 책을 손에 놓지 않으시고 방문할 때 마다 읽어보라고 환권씩 주시고 읽은 다음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중 한 권 Hyper space라는 천체물리학의 신비로운 학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끄는 독특한 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타계하시니 살아계실때 좀 더 시간을 나누어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방문할 때 마다 잠깐 있다가 일어날때 섬섬한 눈치를 보이시곤 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면서 나오곤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병환중에서나마 오래동안 돌아가시지 않고 긴 couch에 들어누우신채 우리의 대화의 상대로 남아계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제 우둔함을 자책합니다. 2년전 Tuscany 레스토랑에서 많은 친지들을 초청하시고 이제 암이 재발하여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시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숙연했던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농담을 하여 손님들을 웃게 했습니다. 닥터 유도 억지로 웃으시곤 했지만 틀림없이 섬섬하셨을 것 입니다. 그때의 제 경솔했던 행동을 이제 사죄합니다.

일주일전 마지막으로 집에 찾아갔을 때 "닥터 김도 내가 miss할 사람들의 하나야" 하고 다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급히 그 말씀을 막았습니다. 슬픔 중에도 눈물로 힘싸이게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렇게 가까이 온줄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때 같이 마음 놓고 울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지난 월요일 밤 돌아가신 후 집에 찾아갔을 때 오랫동안 누워계시던 couch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모든것이 죽음 앞에 부질없고 허무합니다.

닥터 유, 당신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귀여운 손자 손녀의 자라남을 보시지도 못하고 부인의 애뜻한 사랑을 뒤로하고, 막내아들 레이몬드의 결혼을 걱정하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이 텅빈 자리를 남기고 홀연히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은퇴후 인생의 말년을 즐기시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것이 애석합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손꼽아 기다리시고 그때까지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신던 뭉!

신록이 무성해지고 꽃피는 계절의 화려함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유준석 형님.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들을 남겨놓고 미련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을 던지고 가신 유준석 형님의 소천을 슬퍼합니다. 부디 천국에서 행복하시라.

## 평화의 땅

나 날아 오르네, 하늘로 솟아 오르네  
먼저 나 살던 마을 위로,  
세계를 넘어, 우주를 넘어  
없애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내 모습에 웃음짓네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묻는 사람들  
나는 아무 말 않는다네  
나 가는 곳을 알기에 그저 미소 지을 뿐

그 곳은 봄날 아침과 같은 곳,  
바다가 보이고, 시원한 바람부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다리에 내 머리를 누이고 있네

당신들도 오게나,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당신들도 오게나,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왜 망설이는가 평화의 땅을, 평화의 땅을

\* 유준석 동문이 돌아가시기 1주일 전에 쓴 시입니다.

# 새와 손자

천 양 곡(69 시카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 오 후 10시 46분" 단 브라운의 화제 소설 다빈치 코드 첫머리에 나오는 글귀다.

그 아래에 "시카고 Forest Preserve, 2004년 4월 2일," 앞의 문장을 흉내 내듯 내 서재의 메모지에 적혀 있는 말이다.



1년 전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발을 새워가며 다빈치코드를 읽고 난 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사들고 동네 근처의 공원으로 갔다. 봄샘을 하는지 그해 4월 초순의 날씨가 조금 쌀쌀했으나 잔잔한 바람결에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 쪼여주는 햇볕이 어머니 뱃속 같이 포근하게 느껴졌다. 좋은 생각만 하리라 다짐하며 공원 속을 걸어가던 중 어디서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양 옆을 둘러보니 어느 고목에 새 한마리가 눈에 띄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지 않고 나무둥치에 바짝 붙어 계속 쪼아대는데 꼭 나무에서 있는 모습이였다. 언뜻 보니 빨간 모자를 쓴 것 같은 머리에 등은 아프리카 얼룩말 체크무늬를 한 아름다운 새였다. 나는 얼른 목에 걸고 있던 망원경(새보러 다니기 시작한 후 부터 숲 속이나 호숫가를 걸을 땀 항상 잊지 않는다)으로 자세히보니 책에 그려진 red-bellied wood pecker란 새가 틀림없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기뻐다.

그 새가 나무둥치를 떠날 때까지 한 10분간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처음 이 새를 기술했던 사람은 새의 아랫배 부분이 붉다고 하여 red-bellied wood pecker라 했으나 실은 등이 산뜻한 얼룩말 모양을 하고 있어 zebra-bellied woodpecker로 이름 붙여야 옳았다. 내 눈으로 이렇게 예쁜 새를 직접 숲 속에서 만나보니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단 브라운 씨처럼 2004년 4월 2일 11시 40분, 시카고라 기록한 것이었다.

거의 일세기 전 감자 흉년이 들어 미국으로 건너온 아일랜드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하루의 고된 노동일을 마치고 고향 생각이 나서 홀로 숲속을 거닐다가 아일랜드에서 보지 못했던 머리가 온통 빨간색인 새(downey woodpecker)를 본 순간 그만 새에 반해 버렸다. 청년은 그 후부터 공장 일을

그만두고 새들을 찾아 미국 전역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새들의 모양과 특징을 적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쳐 미국 조류연구사에 큰 공헌을 했다. 내가 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3년 전쯤 된다. 육십 줄에 와서야 할아버지가

됐을 때 몇 년 있으면 손자와 같이 놀아주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낚시가 보통 할아버지와 손자가 하는 놀이지만 나는 낚시는 하지 않는다. 물고기의 생명을 걸고 즐다리를 하는게 어쩐지 잔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때 문득 외딴 시골 농장에 살면서 비둘기 키우는 취미를 가진 환자가 내 머리에 떠올랐다. 그 환자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 심한 강박증세를 가진 사람인데 몇 백마리의 비둘기들을 열심히 훈련시켜 매년마다 열리는 일리노이 주 비둘기 경주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다. 온 정신을 비둘기에 쏟으니 자연히 가정과 직장을 등한시 하여 결국 이혼 당한 후 한때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을 즐기고 있다.

그거야! 나는 무릎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낚시 대신에 손자와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bird watching(새의 관찰)이 딱 맞을 것 같았다. 또한 동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손자라 아무래도 언어 소통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새보러 다니는 일은 그리 많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다. 그 해 겨울 당장 몇 권의 책을 사서 새에 대해 해부학적, 생리학, 유전학적, 행동학적, 지리학 지식 등을 알게되어 이전 눈과 귀가 조금 뚱뚱 상태이다.

다윈 선생은 '종의 기원'에서 인간을 진화론의 꼭대기에 놓고 가장 우수한 종으로 정의했다. 그러한 인간도 하늘을 날을 수 있는 새를 보면 부러워하여 날고 싶은 욕망이 후에 비행기, 로켓, 인공위성 등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전엔 무심히 보았던 새도 이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 새소리도 바짝 귀를 세워 듣는 습관이 붙은 내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말년에 나에게 새를 보고 듣는 취미를 심어준 손자 Michael의 출생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원고: (1) 영문으로 쓴 원고, (2) 종교적인 내용 (3)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 가급적이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ld 혹은 아레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우리 세대 사람치고 6.25의 경험담을 한보따리씩 털어놓을 꺼리가 없는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동소이한 가족에 얽힌 비극이 대부분이다. 우리 식구는 법조인인 외삼촌이 납치당했고 집사람은 오빠가 강제징병 된 후 소식이 끊어졌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에서는 집단강박 중에 걸려 이 모든 비극이 미국과 맥아더장군의 소행으로 여기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대통령 왈 그 사람들 생각이 너무 앞서 가는것 같다고 하니 맥아더장군 동상을 철거는 해야되나 시기상조라는 뜻인지, 지나치게 반공일변도였던 독재정권 시절의 반작용으로 이해하기는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지금 일부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들은 김정일의 눈도장 찍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한동안 내가 존경하던 전직 대통령도 이중의 하나이다. 달려갔어 내려서 3억을 가지고는 안될것 같다. 소떼를 또 한번 몰고 가든지 비료를 몇십만톤 싣고 가든지 해야 될것 같다. 목은 쌀은 이제 안받으신다니가.

이 판국에 나의 6.25 회고담을 써보는것도 무의미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집은 대전과 군산을 거쳐 전주에 이사간지 얼마 안되어 6.25를 맞았다. 전주 사람들은 하도 조용해서 걸음로는 난리난 분위기가 아니었다. 전주에 주둔하고 있던 연대를 떠나 보내고 전투경찰이 판을 치더니 얼마 안되어 신태영 장군이 전라도지구 사령관으로 내려왔다. 부사령관으로 온 원용덕 장군은 어머니가 원산에서 자라나실 때부터 잘 아시는 사이였다. 국군의 예상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지점장을 하시든 아버지하고는 손발이 잘 맞았다.

하루는 경찰병력이 한국은행을 포위하고 왜 군에만 돈을 주고 경찰에는 안주느냐고 아버지한테 충을 드리웠다. 정부돈은 지점장 마음대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고 타이르셨는데 상당히 실발한 분위기였다고 들었다.

이윽고 17세 이상 학생 모병이 시작되었다. 교정에 반별로 안에 있는 전북고등학교 3학년 생도 중에는 나의 형님도 끼어있었다.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는 누구 아들도 빠지고 아무개 아들도 귀가했다고 아버님을 못살게 굴어 군경리관계 장교가 학교로 형을 빼돌리러 갔다. 형은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나만 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완강히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입대가 되었다. 혹시 도망갈까 싶어서 그랬었는지 전주에서 입대한 학생들은 이리로 보내고 군산학생들은 전주로 보냈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많이 차출되었기 때문에 사상이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전북고교 2학년생이 학도호국단 단복을 입고 경찰보조원으로 발탁되어 가는 역전 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집에서도 가깝고 역전광장에 반장으로 벌어지는 많은 관경이 흥미진진해서 잠은 잘 못 잤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

역장실에 물결이 못쓰게된 미군병사가 세명 앉아 있었는데 단소장 부대소속으로 자기 소대에서 자기들만 살아 남았다고 했다. 어디서 후퇴하고 오는지 국군 부상자들도 삼삼오오 상부상조하며 역전에 모여들었다. 이때 군산에서 모병되어온 학생들이 지나가는 대열과 마주쳤다. 군산중학에 3년간 다녔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학생이 많았다. 항상 우리 반에서 일등만 하던 남진군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한 일주일 총 쏘는 법이나 배우고 포항전투에 투입되어 많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때 본 친구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큰 빛을 진 기분이다. 갈을 길도 없을 것 같다.

하루는 야밤중에 기병대가 후퇴하고 오는 것을 목격했다. 북북히 말을 한두 마리씩 끌고 터벅터벅 발을 옮기는데

굳어진 표정하고 주인을 잃은 말의 말굽소리가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다. 빈말의 수를 보니 절반은 전사한 듯 했다. 이당시 보도연맹원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돌아서 우리가 밤에 순찰하다가 누구집 대문이라도 두드리면 주민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부들부들 떨기도 했다.

드디어 전주역에서 막차가 여수로 떠나는 날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은행

데 전주에서는 은행에 부담되게 어떻게 소사까지 데리고 올 수있느냐고 좋지않은 말을 들으셨다고 한다.

부산에서 지낸 여름은 지루하고 불안했다. 일본방송을 주로 듣는데 대구와 마산이 종전등화라니, 한달도 못가서 단케르크의 비극이 재연될 것이라니, 이승만 정부가 한 10만명 데리고 제주도행이 되지 않을까 하며 그곳의 내노라하는 시사평론가들이 남의 속타

## 육이오와 나



임 영 신(58 인디애나)

간부들만 도망갈거라는 악성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아버님은 군과 교섭해서 국책은행이며 국고금을 실어야 한다고 꼭간차 하나를 과격적으로 배정받으셨다. 얼마 안되는 돈은 핑계이고 신실 전주지법 행원들이 거의다 숨을 때가 없는 타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북출신 소사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다.

어머님은 짐을 다 버리고 주먹밥만 산더미같이 만들어 가셨다. 집을 떠날 때 낮은 담 넘어 경찰간부하다 은퇴한 열집 주인한테 피난가지 않느냐고 하니 집에 죽겠다고 한다. 집에 있던 양주 몇병을 드셨다. 이 분은 며칠 못가서 처형되었다고 들었다.

곧 떠난다고 기적소리가 나서 꼭간차 문을 닫았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열어보니까 형님이였다. 금강진서 충남 장항을 치려던 호주군 비행기가 만경강 건너 이리를 잘못 폭격해서 정거장이 박살이 나는 통에 그 근처에 있던 형의 부대도 엉망이 되어 먹을것도 없어 해산했다고 한다. 집에 가도 비어있고 은행에 가도 아무도 없어서 panic 상태였을 터인데 떠나기 직전에 용케도 찾아왔다.

막차를 얻어타지 못한 역전 광장의 수많은 피난민을 뒤로하고 여수에 도착했는데 하동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마산으로가는 육로가 막혔다는 청천벼락 같은 소식이 들어왔다. 또 일부 은행직원들이 슬렁대기 시작했다. 아버님은 이때 유테인을 예금에서 끌고 나온 모세와 별 다를 바 없었다.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다고 일장후시를 하셨다.

우회곡절 끝에 여수항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LST 두 척에 탈 수 있게 되었다. 부두에 운집한 피난 군중이 울러 들까하여 열린 LST 앞문에서 군인들이 일본도를 휘두르고 있었다. 또 다시 막배를 못탄 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LST는 밤에 완전 소등을 하고 떠났다.

그날 밤 따라 비오고 바람 불고 하여 배는 rolling에 ritchirs까지 심하게 해서 한치 앞이 안보이는 악취가 나는 선창이나 추운 갑판이나 생지옥에 가까웠다.

가족찾는 소리, 부상병의 신음소리, 갑판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군수물자가 부딪치는 소리에 높은 파도가 배에 부딪치는 소리가 합쳐진 광음 교향곡을 들으며 힘든 밤을 썼다. 날이 새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 부산까지는 못가게 해서 배는 마산에서 내렸다. 마산항에서는 그 고생하고 온 사람들 물 한모금 안주고 간첩을 색출한다고 한없이 뜨거운 햇빛아래서 앉아있게 했다. 이것이 끝나니까 모병관이 와서 젊은 은행원들을 다 끌고갔다. 처자식들이 난리가 나서 또 아버님이 움직여야 했다. '전시금융요원'임을 내세워 다 빼내고 드디어 일행이 부산에 도착했는데 아버님은 은행 중역들한테서 판 지점에서 간부들만 왔는

는 것도 모르고 매일밤 지겨려됐다. 그때 심정으로는 할수만 있었다면 기관단총으로 갈겨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였다.

얼마후 동네반장이 형한테 영장을 주고 갔다. 피난민부터 먼저 주는 것이다. 근시가 심한 형은 또 두꺼운 안경을 쓰고 보따리 하나 꾸리고 동네 온천 근처의 집합소로 갔다. 군대복이 없는지 형은 통금시간에 걸어서 또 귀가했다. 전주에서 같이 입대했던 동급생이 벌써 모병관이 되어 있었는데 너 있을 곳이 못된다고 귀가증을 끊어준 것이다.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어린동생을 데리고 텃빈 송도 해수욕장으로 갔다. 이윽고 헌병학교에 집단 입교한 부산학생들이 수영하러 왔다. 집에 오는 길에 가두 모병관에게 덜컥 걸렸다. 한두시간 잡혀 있다가 하도 동생이 울어대는 바람에 나만 "무죄석방"되었다. 무슨 인연인지 이날 처음 수영을 배운 동생이 재미를 붙여 후에 고등학교 수영선수가 되고 그 시절 국가 기록도 세웠다.

늦가을에 전주로 돌아갔는데 집은 그냥 서있었지만 물건은 다 없어졌다. 동회사무소에 갔더니 숙직실에 우리 이불이 있었다. 아직도 공비와 패잔병이 출몰할때라 가재도구 찾으러 동네를 뒤지고 다닐 분위기가 아니었다.

세상이 바뀌자마자 나의 동급생 강정대군과 또 하나의 친구가 우리집에 나를 찾으러 갔다가 아궁이 주변에서 타다 남은 사진첩 몇 개를 '유품'으로 간직해 놓았다가 돌려주었다. 그러자 곧 부친은 서울 본점으로 발령이 났다. 집이라고는 옷가지와 사진첩 밖에 없으니 이사다니기는 편리했다. 친척들 주느라고 빈 트럭에 쌀을 잔뜩 싣고 갔다.

서울에서 한여름 고생하시며 지병으로 오늘 내일 하시든 외할머님은 말을 꼭 보고 죽겠다고 버티시다가 어머니와 같은 방에서 몇일 지내시다 눈을 감으셨다. 아버님 고향인 강원도 양구에 사시던 친 할머님은 6.25 날 새벽에 정신없을 때 돌아가셔서 근처 들에 가 매장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게된 경위가 희극적이었다. 인천상륙이 시작되어 포화소리가 요란한데 작은 아버님 집을 누가 밤중에 두드리러 내다보니 거지꼴이 된 옛날에 작은 아버님 댁에서 학교를 다니던 양구의 큰집 장님이였다. 그 곳에서 음악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경남고녀인지 부산고녀인지 교장 발령이 나서 거의 걸다시피 하여 겨우 서울까지 왔다고 한다. 그때 귀한 쌀로 밥 한끼 지어먹이고 잡혀죽기전에 집에 가라고 그 길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얼마 못가서 밀려드는 중공군 때문에 임동실한테 다시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다. 아버님은 전주에서 세운 '공' 때문인지 서울철수 책임자가 되셔서 남아 계셔야 했다. 우리 일행은 버스 두 대에 분승해서 떠났다. 딸이 버스지

운용 스리쿼터에 드럼통을 펴서 썩은 고물이였다. 그 많은 사람과 짐이 짊들어졌다. 그때 민간차량은 국도로는 못가고 피난민과 우마차가 불비는 이등 도로로 가야했다. 우리 식구는 5남매 외에 군에 들어간 작은 외삼촌 7남매와 과부가 된 어머니의 여학교 단짝모녀가 끼어 좀 눈총을 받았다. 할수없이 직권 남용을 한 셈이다.

남북된 큰 외삼촌 대식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있던 쌀과 김장김치를 다 주고 떠나올 수 밖에 없었다. 두고두고 그후 속도남한테 원망을 들은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 당시 공무원이건 은행원이건 월급은 겨우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짜증나는 피난길이었지만 서울태생인데도 그 동안 촌놈이 다 된 나는 같은 차에 탄 재치있는 경기 이화여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서 오히려 부산에 늦게 도착하기를 바랐다.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추풍령을 넘어갈때 버스의 뒷바퀴 샤프트가 부러졌다. 다른 버스가 몇 백미터 앞에 가서 샤프트를 뺐아서 뒷차까지 걸어와서 끼고 그차가 또 몇백미터 앞으로 나가는 거북이 걸음이 시작되었다. 한참 그러다가 하늘이 도왔는지 길가에 나뭇그려져있는 대파된 미군 쓰리쿼터가 발견되었다. 얼씨구나 하고 그 차 샤프트를 뺐고 있는데 난데없이 동네청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벗이라고 돈을 내라고 한다. 흥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인지 헌병이 나타나서 군의 소유물이라고 돈을 가로채 갔다. 이솝 무화같은 이야기이다. 대구 못미쳐서 위기가 또 한번 있었다. 그당시 폭격맞은 다리가 많아서 물이 얇은 곳을 골라 건너가야 하는데 우리 차가 물속에서 엔진이 꺼졌다. 차가 차츰 모래속에 빠져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앞에 원치가 달린 국군 트럭을 필사적으로 세웠는데 돈을 내라고 한다. 끌어내줄 듯 하더니 물속에 집과 사람을 가득 채운채 들어가기 싫어졌는지 그냥 가버렸다. 얼마후 지나가던 호주군 트럭이 잠깐 쏘다가 가드니 어디서 새끼를 한달발 갖고와서 우리 차와 연결했으나 금방 끊어져 나갔다. 다시 어디서 새끼를 몇달발 더 가지고 왔으나 또 끊어져 나가버렸다. 포기하고 간줄 알았는데 한참만에 버스가 기울기 시작할 때쯤 드디어 체인을 구해와서 끌어내 주었다.

큰아버님은 서울서 고아원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록 하드슨 영화처럼 미군이 부산까지 수송해 주고 동래 동백섬에 고아원 건물을 지어주고 이 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탄약수송 부대가 스폰서가 되었다. 이곳은 오랫동안 나의 여름별장이 되었다.

할 수 없이 두고온 큰 외삼촌 식구는 대학생인 장남은 징집되고 고3인 장녀는 겁이 나서 외할아버지하고 같이있다가 결국은 걸어서 같이 남하했다. 외숙모도 동네가 무인지대가 되니까 안되겠어서 남은 애 다섯을 데리고 걸어 내려왔는데 수원근처에서 인파에 밀려서 애들 셋을 잃어버리셨다. 미친듯이 애들을 찾으며 대전까지 오셨다고 연락이 왔다. 외할아버님은 부산에서 보시고 외삼촌 누나는 한은 대전지점에 취직해서 그집 살림을 맡았다. 떨어져 나간 여동생인 둘째 딸과 그 밑에 꼬마 들은 도로 북상해서 서울 외할아버지 댁으로 갔는데 어느새 들어와 살고있는 낯도 모르는 사람들이 쫓아내었다고 한다. 할수없이 멀리 신당동 밖에 있는 온기도 없는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 중공군 병사가 발견하고 먹을 것을 주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후퇴할 때 같이 데리고 갔다고 한다.

문산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눈두릅에 얻드려 있던 둘째 딸이 대퇴관통상을 입었다. <다음면에 계속>



지난 20년 동안 알바니 지부는 두달에 한번씩 모임때 마다 회비를 걷었다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 해왔다. 이번에는 Costa Rica로 열흘간 다녀왔다. 우리 지부 회원외에 한성택(57)회장님 동기이신 정진목, 임종원 선배님 맥, 김용재(66), 홍준호(67) 서명원씨 맥이 일행이 되서 28명이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와 파나마 사이에 위치한 나라이고 화산이 많고 활 화산들이 있었다. 수도 산 호세 근처에 있는 Poas라는 화산은 해발 9천피트 되는 산위에 있고 분화구가 깜짝 놀라게 큰데(세계에서 두번째) 흰 연기가 무럭 무럭 올라오고 있었다. 가는 도중에 닥터 정진목께서 가이드에게 혹시 오늘 화산이 다시 폭발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하셨는데 우리 일행이 화산을 보고 떠난 1시간 반 뒤에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로 뒤덮여 이전 입산금지라 됐다며 닥터 정은 로토를 하나 사시라고 한다.

유럽을 여행하면 늘 화려한 궁전과 성당들만 순례를 했는데 이곳에선 자연, 오염 안된 자연 그대로가 볼 거리가 많다. Rainforest를 보호하기 위해 공중에 케이블 카처럼 train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보슬비 내리는 숲을 보며 안내원이 설명해 주는 자연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집에는 절대로 있으면 안되는 캐미나 터마이트도 자연계에선 필요한 존재였다.

4만7천 에이커나 되는 Tortuguero 국립공원은 길이 없어서 배나 경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강을 쾌속정으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데 어찌나 시원하고 상쾌하던지. 큰 가방을 버스에 맡기고 캠핑가는 것처럼 갈아 입을 옷 가지와 세면도구만 작은 가방에 쟁겨들고 배를 타고 가야했다. 열대 꽃들이 만발한 캠핑장 같은 곳에서 두 밤을 잤다. 밤에는 TV도 에어컨도 없어서 대신 풀에서 수영을 하고는 김용재씨 덕에 한잔씩 하고는 밤 늦도록 애기 꽃을 피웠다. 여기는 캐리비안 바다이니가 동쪽에서 떠 오르는 해돋이를 보자고 깜깜한 새벽부터 남편이 하도 졸라서 손전등을 비춰하며 바닷가에 나가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여긴 열대라서 밤에 비가 쏟아지고 새벽에는 구름이 끼어서 해는 구름위로 떠 올라왔다. 그래도 정선배님 시키는 대로 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포즈로 모두들 사진을 찍었다. 잘익은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수박, 바나나

등 과일들이 풍성한 식단도 마음에 들었다. 작은 배에 나누어 타고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원시림은 낮인데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었고 타잔이 타고 다녔을 긴 뿌리 내리는 줄기들 사이로 새들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작은 악어 종류인 케이만, 물고기를 잡으려고 눈도 깜짝하고 물속을 노려보는 새들, 사람을 겁내지도 않았다. 더

알바니 지부

코스타리카 여행

김혜자(Mrs. 황철 66 알바니)



스커버리 채널에서 늘 보는건데 재미있을까 싶었는데 직접 원시림에서 가이드가 가르키는데를 쳐다보다 작은새를 찾아내고, 잠자는 악어를 나무밑에서 찾아내고, 작은 원숭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뛰어 다니는걸 보고 모두들 기뻐서 웃고 행복했다. 나뭇잎들이 떨어져 씩어 들썩는 검은데 큰 나무들은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우람하게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문화재라고는 전혀 없는 나라인데도 매일 열심히 여기 저기 데리고 다닌다. 나비도 보여주고, 희안한 개미집들이 있는 산도 하이킹 하고, 한도 없이 늘어서 있는 대규모 바나나 농장, 내 키만큼 큰 바나나 덩어리들이 쇠줄에 매달려서 줄을 서니 들어오면 여러 사람들이 분업으로 바나나를 떼어서 갈라서 씻어서 포장에서 박스에 넣는 것도 볼만했다. 미국에선 국은일들을 멕시칸들이 다 하듯이 이 나라에선 니카라

과 사람들이 힘든 일, 껌은 일을 맡아하고 있었다. 화산재 덕분에 좋은 커피농사가 잘 된다는데 커피를 손으로 따고 사탕수수를 베고 파인애플을 따고 바나나를 따고 야자열매를 낮이 달린 긴 장대로 따는 일도 다 그들 몫이란다.

Arenal 화산이 있는 동네에는 좋은 온천장이 있었다. 산 언덕에 여러개의

노천 온천이 있는데 물온도가 다 달라서 여기 갔다. 저기로 갔다 떨어지는 물 밑에서 맛사지도 하고 해염도 치고 열대 꽃들과 바위, 수증기가 피어 오르는데 충청도 양반이라 좀체로 옷을 안벗는 김용재씨도 수영복만 입고 모두들 아이들 처럼 즐거워 했다. 밤이면 산 꼭대기에서 붉은 용암이 흘러 내리는게 보인다는데 비가 와서 용암은 볼 수 없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Manuel Antonio 국립공원은 흰 백사장에 바위 절벽과 하이킹 코스도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고운 백사장에 따뜻한 물이 좋아 수영을 못 한다면 김상복씨도 동등시 잘 떠서 수영을 즐기고, 난 얼굴에 죽은게가 다 돌아 나오는 것도 모르고 물속에서 놀았다. 여기는 아주 덥고 습도도 높아 오후에는 에어컨 된 방에서 쉬고 있는데 57년도 선배님들이 바다 낚시를 나가셨다. 갑자기 우르릉

팡 하며 천둥을 치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바다낚시 나가신 분들이 걱정돼 나와보니 세분의 어부인(어부부인)들이 무사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쫓겨가는 심심한 튜너를 다섯마리만 잡아가지고 급의환향 하셨다. 우리 동네 음식 잘하는 미세스 이남수, 이용만들이 주방장이 부엌을 쓰라고 허락해서 호텔 부엌에 들어가 사시미를 만들어 큰 쟁반들에 열음을 깔고 레몬과 라임으로 장식까지 해서 들고 나왔다. 우리 일행 28명 외에 우리랑 같이 버스를 탄 서양인들 까지 모두 모여 초고추장에 찍어 생선회를 즐겼다. 미국 호텔 같은데 어렵도 없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순박하고 친절해서 가능했던 일이다. 정진목 선배님은 너무 기뻐서서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오늘 저녁엔 악사가 불러주는 노래에 맞춰 홍준호씨 부부가 맨발로 즐겁게 댄스를 추고 우리 일행들이 같이 춤을 추며 즐겼다.

다시 산 호세의 호텔로 돌아와 farewell 만찬을 술을 몇잔 마시더니 홍준호씨가 일어나서 즉석 사회를 보았다. 일행중 제일 어린 니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제일 인상적이었나를 얘기를 하라고 했다. 차례로 일어나 이야기하는 서양인들은 한결같이 우리 일행에게서 많은 것을 느꼈단다. 인종, 색깔, 다른 문화권에서 왔어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인간인걸 인상깊게 느꼈단다. 우리가 같이 사시미를 먹자고 한것에 감명을 받았었고 우리들의 결속, 당당함, 높은 수준에 놀랐단다.

한성택 회장님은 친구, 후배들과 좋은 시간을 갖어서 기쁘다고 얘기하시고, 홍준호(67)씨는 공해와 여러가지 자연 손상을 걱정하던 우리들이 지구 한쪽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준 이런 곳이 남아있어 이 나라가 고맙다고 했고, 이남수(71)씨는 하나님이 주신 예뻐 동산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북이 메어 울먹이는 것과 대조적 이었다. 이정은(64)씨 부부가 춘향가를 부르고, 정진목씨가 직접 지으신 한시를 강의하시고, 성악가이신 미세스 임종원씨의 선창에 맞추어 '나의 살던 고향'을 합창하는 것도 인상적이어서 가이드는 우리 그룹을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라며 울음을 펴셨다.

Pura Vida Costa Rica!!  
Pura Vida 우리 동문들 !!

<전면에서 계속> 정신이 들어보니 국군 군의관이 치료하고 있었다. 이 군의관이 애들을 며칠 돌보다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마침 시운전자 문산역에 들어온 기관차 기관사한테 부산까지 데려다 주라고 떠맡겼다. 이 애들은 이 기관차에서 저 기관차로 옮겨다니며 릴레이식으로 몇주만에야 부산에 도착했다. 내가 부산전에 있던 철도관계 피난민 수용소에 데리러 갔는데 격납고 처럼 큰 대형창고에 돛짜리를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답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 사촌 동생들은 살이 통통했다. 그후 내가 업고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아서 이애는 다시 걷게 되었다. 이십여년 전에 외환은행 지점장 부인으로 시카고에 왔을때는 감개무량했다.

이때쯤 지금 시카고에서 증권분야에서 성공한 나의 대전중화 친구인 이범익군을 부산육군 병원에서 만났다. 밴드부원 이었던 이군은 군악대 행진이 멋있게 보여서 이기찬군과 같이 육군 군악대에 들어갔는데 그 해 겨울은 어떻게 추웠는지 한데서 나팔 부느라고 고생케나 했다고 한다.

얼마뒤에 강원도에서 국군 3개사단이 중공군한테 완전히 포위되어 산산조각이 났다. 마침 이곳에 있었던 이군

은 머리를 써서 경험이 많은 백골부대 철모를 쓴 군인들을 뒤따라 산을 몇개 넘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도망칠 수 있었는데 저격병이 쏘았는지 대피관통삼을 입고 쓰러졌다. 돛 밖에 지나가던 동부가 발견하여 집에 업고가서 돌보아 주었다. 중공군이 드려다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짧은 머리에 헬멧 자리가 뻥이 있었는데 알고도 속아 준것 같다고 한다. 인민군이었던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좁아터진 곳에서 많은 식구가 같이 살아서 그런지 꼬마들이 병이 자주 생겼는데 두살도 안된 막내 여동생은 이때부터 안면신경이 마비되었고 외삼촌 막동이는 척추 카리에스로 평생 곱추가 되었다. 이것도 영원히 남은 6.25의 상처중 하나다. 답답하게 지내던중 전북고교가 개교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혼자 전주로 떠났다. 가는 길에 지리산을 넘기전에 진주에서 하루 잤는데 시가지는 완전히 폐허 상태였다. 그런데 한 움막에서 클래식 음악이 들려왔다. 다방이 열려있는 것이다. 커피를 마시며 인테리 주인한테 그동안 진주에서 겪은 얘기를 들었다.

전주에서 여름방학까지 학교 다니는 동안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강당에서 열린 6.25 후 타계한 학생과 선생님들

추모식은 아직도 본 일이 없다. 일제말기에 쓰러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계체조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오신 Mr. World 같은 체격인 체조선생은 철사에 묶여 끌려 다니다가 참살되었다고 한다. 반공강연을 경찰요청으로 하고 다닌것이 죄였다.

우연히 만나게 된 군산친구의 이야기로 끝을 맺을까 한다. 진해에서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주말에 서울 다녀오려면 토요일 오후에 삼랑진에서 차를 갈아타는데데 시간이 뻑뻑해서 장교간이 달린 급행열차를 놓치면 사병간이 달린 완행열차를 타고 일요일 아침에 도착한다. 이런 사유로 꼭 찬 사병열차에 서서가는데 열차헌병상사가 순찰을 왔다. 눈을 마주치니 가깝게 지내던 차영우군이였다. 열차안에서는 왕중왕인 그는 곤히 자는 사병 여섯명을 자리에서 쫓아내느니 강생희 바꾸니를 통채로 갖다놓고 밤새도록 같이 술을 마셨다.

6.25 전부터 학생들까지 좌우대립이 노골적으로 심하던 군산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반의 유일한 YMCA 회원이었고 나중에 TV 극작가로 성공한 장동욱(장사공)군은 학교에 만들어 놓은 유치장에 여름내내 갇혀있다가 뱀집이 좋아서 심심하면 두

들겨 맞았다고 한다. 좌익 조직원들이 도망치면서 군산교외의 옥구군에서 학살극을 벌렸다. 큰생선을 찍는 갈구리로 사람을 찍어서 우물안에 집어 넣었는데 우리 친구 하나는 자기발로 우물에 뛰어 들었다고 한다. 하도 마셔서 녹초가 된 나는 집에도 못가고 용산역 헌병대에 하루종일 입원하고 있다가 밤차로 돌아왔다.

여담이지만 내가 사는 오하이오 강가 Evidueville에서 2차대전중에 나를 살려준 LST를 몇백척 건조했었다. 몇년 전에 칠팔심 노인이 된 옛날 승무원들이 회합 해군에서 쓰다 폐선 처분된 LST를 한 척 찾아내서 대서양을 건너고 미시시피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Evidueville까지 끌고왔다. 흉남에서 LST로 철수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실만하다.

끝으로 또 한가지 증언하고 싶은것은 백아더장군이 파면되던 날이다. 몇일만에 돌아온다고 "삼일의 약속"을 하고 혼자 오신 외가족 친척 한 분은 소리를 내고 우셨다. 많은 이복 피난민들의 생이별이 선언된 날이었다. 동상을 부시겠다니! 이 세상에 필요없는 전쟁을 시작하는것 만큼 큰 범죄가 또 어디 있겠는가. 불행하게도 역사는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다.



# 과거를 묻지 말라고 !!!

허 선 행(64 대뉴욕)

우리는 모두 잊고 싶은 과거, 잊어서는 안되는 과거 또는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있다.

우리말의 '과거'는 단순한 현재 미래, 과거의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좋지 않았던 것 까지 결드린 뜻이 있기에 좋지않은 이력, 경력, 행실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니 나도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지만 또한 뜻대로 마음대로 잘 안되는 것이 어느 개인의 과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본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나를 포함해서 과거를 묻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고 아예 어떤 수치스러운 과거는 깨끗이 잊고 싶을 때가 많다고 단정해 본다. 이런 것이 우리 모두 개개인에서 부터 시작해서 사회 국가에 까지 없는 곳이 없으니 이것이 우리 인류생활 또는 삶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만 단정한다면 그저 운명에만 맡긴 인생 여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또 새로운 연구의 초기 보고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의 아주 처참했던 기억을 없애보자"는 과제이다.

어떤 약물을 처방한 기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투여함으로써 그 기억을 없애버리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자는 의도의 연구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여인이 감관을 담하고 나서 그 처참했던 고통의 기억으로 일생을 그 악몽 속에서 괴로워 하며 살아야 한다면 이러한 치료가 그 여인이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도이다.

이 연구가 성공되어 잊고 싶은 것은

잊고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은 것은 그 대로 보존할 수도 있다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부끄럽고 치욕적인 과거도 많은 경우에 잊지 않음으로서 도움이 될 경우도 많으니 그 분류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즈음 나 자신도 아예 이런 일이 없었거나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바보같은 생각도 해봤지만 분명히 일어났고 문자로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신문 방송 등으로 온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과연 쉽게 지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아직 근처에도 못 갔는데 다 왔다고"하는 사람, 그것도 자기 국민과 국가를 등에 업고 지구상의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뒤흔어 거지를 고했던 그 일이 신용과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신뢰도를 하수도로 던져 버렸으니 우리 옛말씀대로 "진흙 위에 얼어 쏠아진 물 다시 쫓아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마 이 사람도 자기가 저질렀던 이런 기막힌 거짓의 과거를 과연 깨끗이 잊을 수 있는 길을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면서, 머지않아 연구개발되어 사용될 수도 있는 이 약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수 없이 많겠지만, 예를 들어 미 부통령의 사냥총 사건 같은 것이 오히려 이 분을 공인 아닌 개인으로 본다면 이 약물 복용에 아주 적당한 케이스가 아닐까? 내뱉대로 생각해 보았다.

이제 아주 아주 크게 손상당한 우리 민족의 성실성과 신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과거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Byron과 Hearst

이 원 택(71 남가주)

그리스 여행중 아테네의 남쪽 에게해의 베타 끝에 세워진 바다의 신인 Poseidon 신전을 가 보았다. 그리스에는 깔려 있는 것이 신전이라 포세이돈 신전 자체로는 별 감명을 못 받았으나, 신전이 있는 'Sumion 가는 길'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아테네를 중심으로한 중부 그리스는 몽글몽글한 돌가닥 산에다가 울리브 나무들이 뭉터뭉터 모여있는 척박한 땅 덩어리인데, '만약에 바다가 없었다면'(오나시스가 제일 싫어 했다는 노래) 정말 볼품 없었을 것이다. 혹시 제우스가 그의 동생 포세이돈을 생각해서 그의 신전으로 가는 길을(물론 미래에 세워졌지만)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기이한 암석과 기화요초로 장식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문득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을 끼고 찾아가 본 San Simeon에 있는 Hearst Castle이 생각나 다시 한번 'Simeon 가는 길'을 답사하고 왔다. Simeon 가는 길은 4월 초, Simeon 가는 길은 5월 초가 일년중 그 두 길을 여행하기 제일 좋은 때라고 한다. 대충 두 길을 비교하면, 고대와 현대, 구대륙과 신대륙, 반도와 대륙, 유럽과 아메리카, 바위와 목초, 양떼들과 젓소들, 아기자기함과 시원함, 과도의 잔잔함과 거칠음... 등등으로 끝이 없겠으나,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각자 그 두 길을 뻗길나게 다니면서 주위의 풍광에 미쳐버린 Byron과 Hearst이다.

둘 다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돈쓰는 씹씹이가 나무젓가락도 못물고 태어난 우리 소시민들 하고는 비교가 안되었으나 Byron은 막대한 유산을 다 까먹고 갔고, Hearst는 쓰다 쓰다 남아 돌아가게 많은 양을 세금 대신 정부에 기부하고 갔다.

찬란한 문화를 자부하는 그리스인들이 부터 외국인으로서 유일무이하게 'Byron의 Greece'라는 타이틀을 받았듯이 Byron은 돈과 (당시 약 4천 파운드) 목숨을 바쳐 (터키 대항 그리스 해방전쟁에 참여중 풍토병으로 사망,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죽음을 의사 탓으로 돌리는데 그 당시 고열을 치료하는 방법은 피를 뽑아 버리는 것이었음.) 그리스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토록 Byron을 매료시킨 그리스에는 뭘뭘에 갔었는가?

결론은 노예제도가 없는 세계 국가 건설이라는 그럴듯한 모토 아래 엮이나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 영국 사교계의 망나니로서 총횡무진한 Byron이 엽색행각의 도피구로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근친상간이 공공연히 자행된 신화들의 고장, 그리스를 택한 것 같다.

다 아다시피 Byron은 어려서부터 색을 밝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는데 (Harrow 시절 동성애에 몰두했으며, 말년에도 희랍의 미남 소년에게 연연했고 전처에 의하면 35세 연상인 Lady Melbourne과의 정사가 있었다함 - 49% 정도 신빙성 있음), 특히 그의 배 다른 순위 누나와의 염문으로(말까지 하나 나왔음, 90%이상 신빙성 있음) 가정 파탄은 물론 더 이상 런던의 사교계나 정계에서 발을 부칠수가 없었다고 본다. (당시 영국에서는 사촌끼리는 괜찮았지만 친남매간에는 No 라는 불문율이 있었음.)

Byron과 Hearst 둘 다 희대의 광신자들로서 Byron의 경우 여고생들이 "오빠! 사인해 줘요!" 하면 가던 길도 멈

추고 스케치할 때 까지 품을 잡았는가 하면 어떤때는 아라비아 왕자같은 복장으로 나타나서 동심을 농락하곤 했다. 또한 포세이돈 신전의 돌기둥에는 아직도 희미한 글씨로 'Byron'이라고 자필 서명한 글자가 남아있는데 Byron 이아말로 graffiti의 원조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반면 Hearst는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신나게 팔린 신문들을 토대로 쌓아올린 부를 처치하느라, 말로는 자기 부인에게 헌납한다는 명분아래 지어놓은 Hearst Castle 내에서 헐리우드의 내노라 하는 여배우들을 꼬셔서 질펀하게 논 것으로 되어 있다. 둘 다 정치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여자들처럼 emotionally charge도 안될 뿐더러 캠페인에도 서툴렀던 모양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순진한 Byron은 문장으로 여성을 꼬시느라 많은 정성을 쏟은 반면, Hearst는 돈도 돈이지만 방대한 양의 아트 콜렉션으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회한 솜씨를 썼다는 것이다. 결국은 Byron은 여자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Hearst는 그당시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니 여자란 역시 정보다 돈에 더 약한 동물인가 보다.

예를 들면 Byron이 아무리 미남이고 천재적인 시인이자 해도 그가 연상의 여인을 사귄때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연하의 여인을 사귄때는 자기 돈을 찢어 넣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아도 나이에 값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Hearst는 형식상으로나마 싱글들을 데리고 놀았는데 Byron은 거의가 유부녀들을 상대로 했더니, 누가 더 도사인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지 않을 수 없다.

## 미시간의 어느 여름밤

이 한 중 (65 미쉬간)

오늘 토요일,  
하루종일토록 삶의 축복 이었오이다.  
어디를 가나, 짙은 초록의 세상,  
어디를 쳐다보나, 푸른 창공,  
새들은 사방팔방으로 하늘을 열어주고,  
어디를 향하나, 죽음과 고통은 흔적도 안보이고,  
어디를 향하나, 삶을 즐기는 사람들 뿐,  
온 우주는 무엇보다도 강렬한 태양의 에너지로 넘쳤습니다.  
온 우주는 오직 삶, 삶의 에너지, 삶의 축제였습니다.  
나도 그속에 끼어, 정신없이, 다시한번,  
삶을 즐기려 했나봅니다.  
어제 뉴스에서 들은, 북한 김정일의 유도탄 발사,  
사담 후세인의 제노사이드 재판,  
내일 모레가 되면, 나는 66세가 된다는 사실,  
침울증의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고도 싶었습니다.  
뛰어 보기도 하고, 게임도 해보고, 농담도 해보고,  
카테일도 마셔보고,  
하루종일토록, 삶의 재미를, 다시한번, 찾으려 했습니다.  
하루종일토록, 삶의 축제파티에, 다시한번, 열성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미시간에는,  
포근하고, 평화로운 여름밤이 내렸습니다.  
어느새, 나는 명상에 잠겨,  
창밖에 동지 찾는 새들의 지저귀음 들어가며,  
일부러 불도 켜지않고,  
오직 어두움을 삼키고 호흡하며, 또다시,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외쳐봅니다,  
"삶, 삶의 축제만이 진리로다."  
"죽음도 삶의 축제, 삶을 위한 것,  
그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외다."  
"이 우주에는 오직 삶의 축제만이 있는 것이외다."

## 비

노승국(70 텍사스)

창문을 열게 흐르는 빗물이  
알아 들을 수 없는 흐느낌으로  
내 허전한 가슴을 적시면  
굴곡된 시야에 변한 이 세상이  
너무나 서글퍼 슬픔을 잡는데  
티끌없는 진초록 저 빛이 그리워  
되돌아 보는 청춘의 꿈이 아쉬워라

찬란했던 햇살 잃어 침울한  
가로막힌 이슬이 지겨워 힘들어  
구름 위에 빛나는 저 세상이  
언제이었던가 기억 없는데  
지칠 줄 모르는 이 비바람  
내 마음의 온기를 문통 앗아가  
흔미해진 슬기운처럼 외로워라

짙은 먹구름 뚫어 볼 수 없어  
떨군 시야에 청초한 꽃한송이  
빗줄기에 흠뻑 젖어 지쳐있는데  
젖기어 고운 그 마음 잃지 않아  
나를 바라보는 애처로운 그 얼굴  
오래 잊었던 남의 모습 닮아  
여울져 오는 추억이 서려워라





# 며느리 감

임낙중(59)

배우자 선택에 부모들이 간섭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며느리 감을 그려보는 이유는 기왕에 며느리 선택에 전혀 발언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상상하는 재미라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옛날처럼 며느리 선보러 사귀듯 재미보며 다니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딱하다.

학벌은 일류가 아니라도 좋다. 두뇌가 좋은 gene를 가졌어도 한때 공부에 취미가 없거나 혹은 주위 환경 때문에 일류 대학에 못갈 수도 얼마든지 있고 유전학적으로 수재가 반드시 수재를 낳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는 색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루한 남녀차별 때문이 아니다. 대학시절 한때 나는 불란서 여배우 시몬 시노래를 좋아했고 특히 담배를 꼬나 물고 연기를 길게 뿜어내는 그 모습이 멋있고 로맨틱하게 보였다. 그녀의 마음에 담긴 낭만 애수 정열을 담배연기로 태워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흡연이 태아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후로는 젊은 여성의 흡연은 범죄행위로 보여 미워졌다. 자신이 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담배를 피우는 것과 자기 자식이 장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위험을 알고 피우는 것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직업도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간호사같은 전문직을 가진 여성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익이 있었지만 전문직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시간적 부담 때문에 반드시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노릇하기가 쉽지는 않다. 가정과 직업 사이에 갈등이 있게 마련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더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키 크고 팔등신이 아니라도 균형잡힌 건강미가 좋다.

어머니 키가 작아서 그랬는지 키 큰 여자는 게으르다, 심겁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고 모형을 하는 키 큰 여성을 보면 귀여운 생각이 적다.

장수하는 사람중에 키 큰 사람이 드물고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것 같다. 패션 모델같은 웃결이 형보다 아무지게 생긴 씨암탉형이 좋다.

집안에 유전병이나 정신병 환자가 없으면 금상첨화이겠다.

개성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센 여성은 반갑지 않다.

미국 사회가 그런 성격을 장려하지 않음 미국 문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평생을 배우고 배워도 모르는것이 많고, 과거에 가졌던 그릇된 생각을 계속 고쳐가며 사는 것이 인생인데 젊은 여성이 얼마나 안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단 말인가.

개성이 너무 강한 힐러리 여사 같은 여인과 살려면 남자는 피곤할 것이고 부부가 따로 놀 수밖에 없다.

여권 운동가가 필요하고 존경도 하지만 내 며느리로는 반갑지 않다.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 사랑을 알고 행복을 안다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이 많다고 한다.

인간의 도리, 자식, 가정을 다 거부하는 여성을 아내로 맞는 남성은 가련하다고 생각한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

든지 짐작하지만 부모들이 자신을 키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꼭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라면서 부모들의 행동 범절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과 참을성같은 덕성은 오랫동안 부모를 보면서 배운다.

부부란 싸우면서 정이 드는데 참을성과 사람이 모자란 여성은 오랜 결혼 생활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다.

자유나 권리를 찾는데만 밝은 여성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한 남자를 참고 견디기 힘들 것이다.

얼굴이 곱고 아니 곱고는 별 문제가 안된다.

주위를 돌아보면 곱지도 않은 여인이 남편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예가 많다. 미인 박명이나 눈이 맞으면 인정이라도 예뻐 보인다라든가 반하면 눈에 께질이 씩여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미와 부부금실과는 별 관계가 없다.

한국에는 정략결혼이 많다고 한다. 특히 재벌과 권력을 쥔 사람들 간에 그런가 보다.

나같은 의사는 재벌이나 권력을 쥔 사람한테 덕을 볼 일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런 사돈을 가져서 해로운 것은 없겠지만 거래가 부담스러울 뿐이다.

요란한 결혼식이나 혼수가 아이들 행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보통사람의 가족끼리 만나는 것이 마음이 서로 편할 것이다.

내가 자식들의 배우자 선택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처지지만 사람이 꿈도 꾸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어떤 며느리가 좋을까 공상을 즐긴다해서 누가 나를 나무랄 것인가.

아직 짝을 짓지 못한 자식 아이가 있으니 해를 넘기며 초조한 마음도 달랠겸 백일몽으로 늙은이의 소일거리를 삼는다.

## 한여름 오후

신영철(59)

이웃집 개 나무 그늘에서 즐기고  
아침내 지저귀든 새들도 조용하고  
조물주 마저 일손을 멈춘듯한  
한여름 오후

이노인 눈꺼풀이 무거운 듯  
스르르 내려 앉는다

"... 나와 놀자"

흠... 그럴이가 없지  
다시 사르르 잠이 온다

"... .. 고기 잡으러 가자"

흠 꿈이었나?  
또 잠이 들려 하는데

"... .. 우리 먼저 간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니  
은천지에 가득 찬 퇴락별 아래  
이웃집 아이들이 왁자지껄  
길에서 놀고 있고

# 거북이 이야기

이건일(68)

추운 겨울을 짧게 보내려면 일 이월중에 따뜻한 곳에 여행을 다녀오면 된다. 올해는 하와이에서 두 주를 보내게 되었다. 처음 첫 주는 Maui에서 있는 학회에 참석하고 둘째 주는 Oahu 섬에 있는 Koolina의 time share condo를 아들이가 제가 번 돈으로 하나 샀다기에 효도 받는 셈으로 같이 지내기로 하였다. 며느리는 새로 간 직장 신입자가 출산휴가 가는 바람에 못 오게 되어 오랜만에 우리 부부와 아들 이렇게 셋이서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숙소 앞에 lagoon이 네 곳이나 있어서 얕은 물에서 snorkel 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 나는 원래 물에 들어가는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나 아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라. 그의 장비를 빌려, 물안경 쓰고 숨쉬는 빨대 물고 물 속에 머리 처박고 노랑 물고기, 줄잇는 놈, 없는 놈, 무지개 색깔인 놈 등을 보며 즐기고 있는데 앞의 바위 덩어리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우선 잔 바닷물을 한 입 삼키고 자세히 보니 그건 하와이 초록 거북이(Hawaiian green turtle)였다. 이놈들은 하와이 북쪽 어느 섬에서 부화하여 이 삼년을 바다 한가운데서 자라다가 하와이 제도로 내려오는데, 낮에는 깊은 바닷물 속에 있다가, 밤에 해안으로 나와 바위에 붙은 해초들을 뜯어먹고 산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게으른 놈들이 아침에도 해안에 남아 있는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놈이 그런 놈 들 중 하나였던 모양이다. 나는 거북이를 좋아한다. 동물중에서 제일 젊잖고 위엄있는 것 같아서이다. 이야기에 나오는대로 그 꾸준함으로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기고, 토끼가 간 찾으러 집에 간다니까 보내주는 순진함이 나는 좋다.

호놀룰루는 가히 미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인종의 전시장이며 용광로였다. 햇볕에 그을린 갈색 피부의 작은 체격들은 얼른 보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하와이 원주민인지를 구별하기 힘들다. 또 한국 음식점에 가 보아도 손님의 반 이상은 한국인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제일 큰 식료품 슈퍼마켓인 Daiei에 장보러 몇 번 갔었다. 많은 식료품 상품들이 동양에서 온 것들이었고, 특히 한 쪽에 한국물품만 파는 집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화장품, 잡화들이 다 한국에서 수입한 것이었고, 한국 연속방송극 DVD set들이 있길래, '내 이름은 김삼순'을 샀다. 숙소에 돌아와 이걸 이틀에 걸쳐 죄다 보았다. 15회분량이니 15시간을 내리 본 셈이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거의 성장하였고 학교도 나왔으므로 이런걸 잘 안보리라 생각하였는데, 웬걸 자기가 먼저 끝까지 다 보자고 하는 게 아닌가. "휴가인데 뭐 어때요. 같이 이런 것 보고 하는게 진짜 베케이션이지" 하면서 끝까지 다 보았다. 아마 한국에서 대학나온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말 실력이 많이 늘었나 보다. 자기 말로는 대화를 한국말로 대충 듣고 영어 자막으로 확실히 이해한다. 한국 연속극은 대개 같은 이야기의 중복이다. 3각 아니면 4각 관계에, 주인공 하나는 정석대로 불치의 병에 걸려 죽는다. 우는 장면이 너무 많고 스토리 전개가 상당히 느리다. 그래도 일단 시작하면 뻔한 결말을 알면서도 끝까지 보게되는 묘한 중독성이 있다. 대사가 참신하고, 재미있고, 현대 한국인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점도 좋다. 그래도 혹 보다보면 무슨 교훈 같은 소리도 나오고 사회상을 꼬집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인기있는 소위 '한류'의 침범이 이 연속극이 아닌가. 그들은 아마도 극의 배경으로 나오는 주위 환경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상이라든가, 가구, 자동차, 음식집 이런 것들이 더 관심사인 모양이다. 마누라는 몸이 아픈 날이면 '대장금' 보기를 좋아한다. 민 종사관 나라가 눈 속에서 장금을 업고 가는 장면, 장금이 왕의 주치의로 임명되자 대신들이 반대 할 때마다 왕이 그의 관직을 올려 주는 장면 등... 파란 만장한 장면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눈물도 흘린다. 눈물이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카타르시스가 아닌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점심을 먹고도 시간이 한참 남아 이곳에 있는 큰 서점 풀에 있는 Barnes & Noble에 들어갔다. 시간 보내기에는 책방만한 곳이 없다. 이리저리 보다가 DVD section에 가 보니 한국 연속극 DVD set 가 잔뜩 진열되어 있는게 아닌가. 참 반가웠다. 이곳이 하와이라 동양사람이 많으니 같은 정서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이겠지. 우리 시는 중서부에서는 도저히 일어 날 것 같지 않은 일이다.

다시 이리저리 살피다가 시집 있는 곳으로 갔다. 요즈음은 소설류 보다는 역사책이나 시 종류가 더 좋다. Pablo Neruda(1904-1973)의 시집들이 여러 종류 꽃혀져 있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에 '우편 배달부(il postino)'라는 이태리 영화가 있었는데, 주인공인 우편 배달부와 친구가 되는 시인이 하나 나오는바, 그가 바로 Neruda 였었다. 조국인 칠레에서 Pinochet 독재정권을 피해 이태리에 망명을 와 있던 것이다. 그는 1971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 영화를 본 후 인젠가는 그의 시를 읽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여기 그의 시집이 있다! 한 권 골라 사가지고 나왔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의 시 몇 편을 읽었다. 마침 거북이라는 시가 있기에 여기 소개해 본다. '번역은 번역'이라는 말도 있고, 특히 시는 번역하면 맛이 가버리는 것을 잘 알지만 대충 초역해 보았다. 좀 긴 시라 앞과 끝의 부분만 실는다. 나의 스페인어 실력이 짧아서 영어 번역본을 많이 참고하였다.

거북이  
거북이 힘있게 앞으로 나가며  
그 오랜 시간을  
그 많은 것들을  
그 늙은 눈으로 보는구나  
(중략)  
너무 많은 것  
바다, 하늘, 시간 그리고 땅들을  
보느라 힘든 그 눈꺼풀을 내리며  
잠이 들면  
그는 바위들 중의 하나가 된다.



La Tortuga  
La tortuga que  
anduvo  
tanto tiempo  
y tanto vio'  
con  
sus  
antiguos  
ojos,  
(중략)  
Cerro'  
los ojos que tanto  
mar, cielo, tiempo y tierra  
desafiaron,  
y se durmío'  
entre las otras  
pedras.



세월은 많이 흘렀다. 그래도 여전히 때때 6월이 오면 쓰라린 추억이 되살아나기 마련이다. 나는 8.15 해방을 평양에서 맞았고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진 이후 서울로 내려와 의대를 졸업하던 해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뒤인 6월 27일 갑자기 이북출신 동창들이 의용의료반을 조직하고 그날 오후 다섯 시에 모이기로 하였다. 그런데 돈암동 종점에 살던 나의 여러 동생들을 감 건너 상도동 이모택으로 피난시켜 놓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혼잡하여 나는 그 약속한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하니 동지들은 이미 혈서를 써 놓고 미아리 전방으로 출동한 뒤였다. 착잡한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그날 우리 대학 병원은 이미 국군 아전병원으로 변해 있었고 당직 교직원 하나와 몇몇 간호원들이 물러 들어오는 부상병 치료에 바빠 돌아다니는 나도 그들과 함께 부상병 치료를 해주며 거기에 남기로 하였다. 몇 시간이 지나자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국군 위생병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더니 사방이 조용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국군부상병들을 남겨 둔 채 그들은 후퇴한 것이다. 흥부와 여개 등에 두껍게 붕대를 감고 집대를 누어 있었던 건장한 젊은이들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 젊은 부상병들은 공산군이 침입해 왔을 때 모두 총살 당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야, 우리도 숨어야 된다" 하니 모두들 허겁지겁 지하실을 찾아가 숨게 되었다. 지하실은 몹시 어두웠고 뒷 쪽 한 끝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그 창으로 기어올라 밖을 내다보니 한 여름의 새벽은 이미 밝아 있었고 병원 본관 정면에는 인민군이 은통 깔려있는 것이었다. 나도 이어서 내다 보았더니 그들 병사들과 초목으로 위장한 말 달구지가 여러 대 보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보급부대인 모양이었다.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쳐움을 느꼈다. 공포와 기만 정치를 일삼는 그들을 피해 남으로 자유를 찾아 피난은 내가 이제 그들 손에 잡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 때 누군가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며 위로 올라가 보고 돌아와 하는 말이 병원 본관 건물 안에는 도처에 인민군들이 있는데 아무도 검문하려 들지는 않더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씩 지하실을 빠져 나갔는데 나도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가슴을 조여가며 조심 조심 올라와 병원건물을 빠져나와 돈암동 종점 우리 집까지 정신없이 달려갔다. 그 때 어느 길을 어떻게 뛰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지금도 6. 25를 맞으면 그 때 피신했던 대학병원 지하실의 '작은 창'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집에 돌아온 다음날 이북에서 피난 온 젊은이들을 모두 색출해 잡아 간다는 소문이 돌으니 부모님들은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걱정 하셨다. 수소문 한 결과 약수동 넘어 옥수동에 가면 한강물이 얕아서 쉽게 건너 갈 수 있을 것 이리 하여 나는 혼자 집을 나섰다. 가까이 이르니 어느덧 10여명의 남자와 과 합세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당 민청대원들이 이미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붙잡혔다. 나는 고지식한 성격 때문에 평양에서 넘어 왔고 서울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다고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들로부터 무서운 폭행을 당했는데 무릎을 세워 앉혀 놓고 큰 봉동으로 내리치니 Patella(무릎 앞 뼈)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성동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뒤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함께 잡혔던 일행 인에는 전직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 당하였다고 한다. 유치장은 독방이었다. 거기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매일 심문을 받았다. 일주일 후에 나를 부르더니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간부 교수들의 거처를

보고하라는 사명을 주면서 나를 석방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만일 의사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놓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모두 자기네 손아귀에 들었으니 후에 이용하려는 심산이 었든 것이다. 이것은 8. 15 이후 38선을 넘을때 와 똑같이 내가 생사의 기로에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한 두 번째 일 이었다. 그 뒤에도 나는 여러 번 비슷한 고비를 넘겼고 나의 삶은 '작은 창'의 비애에서 출발하여 계속된



Domino Effects로 인한 많은 고뇌로 수놓아진 것이다. 이들 고뇌의 연쇄 반응인 격랑을 헤치며 살았던 여정을 회고해 보려고 한다.

**9. 28 까지의 Fox Hole 생활**  
 내가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와 출연히 집에 나타나니 어머니께서 아연실색 하셨음은 물론이다. 이제는 다른 도리가 없으니 부엌 한 끝에 fox hole을 파고 그 위에다 조그만 찬장을 얹어놓고 거기에 들어가 매일 밤을 새워야만 했다. 공산 보안대가 숨어 있는 청년을 잡아낸다고 밤중에 담을 넘어 기습해왔기 때문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그들 망보시느라 밤 잠 한 번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었다. 조금 있던 식량은 다 떨어지고 석 달 후반 기에는 조금 남은 밀가루를 연하게 끓여서 요기해야만 했다. 그러던 중 어쩌다 한번 먹었던 고구마 맛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 뒤 언제부터였던가 한 밤중이 되면 멀리서 대포 쏘는 굉음과 섬광(구름)을 통하여 비추었다고 한을 보게 되었는데 약 두 주일 후에는 집 바로 북쪽인 미아리 능선을 따라 쫓을 이은 포격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UN군의 함포사격에 이은 탱크 포격이었다고 한다. 집 마당에는 초연과 함께 여러 개의 파편이 떨어졌다. 그리고 수일 후에 드디어 9. 28 수복을 맞이하였다. 이날 나는 평양을 탈출하여 38선을 넘어설 때 느꼈던 형용하기 어려운 그 해방감을 다시 맛보았던 것이다.

**공군군의관과 관비유학(LACGH)**  
 중공군의 참전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서울을 철수한 이후 부산과 대구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국립경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공군본부 의무감실을 찾아가 공군군의관으로 자진 입대하였다. 그때 정식 훈련은 없었고 현지입관 하였다. 1952년 2월 이었다. 5명이 함께 들어갔는데 나만이 비행단(기지 근무)에 배속되어 경남 사천을 찾아가야만 했다. 연습기 몇 대 밖에 없었던 영아기 한국공군, 전투기라고는 한 대도 없었다. 몇 달 후에 미국 제 5공군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등장한 미국 최신 전투기 F-51 (Mustang)을 받게 되었다. 이 훈련비행단 의무전대에는 선배님 몇 분이 계셨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10개월을 사천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항공의 학장과 특기가 신설되어 일차 요원으로 수영 K-9 미공군 야간폭격기지에 가서 공군비행군의관(flight surgeon) 실무교육(O.J.T.)를 받고 나서 나는 한국 공군에서 세 번째의 비행군의관이 되었다. 공군 전투조종사의 건강관리가 그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신설된 제 10공군 전투비행단에 배속 명령을 받아 감릉 공군기지(K-39)로 가게 되었다. 동해안선을 따라 공군 GMC 트럭에 보급품을 실은 그 한 끝에 올라 앉아 눈 보라치는 악천후를 무릎쓰고 부임해야

만했다. 우리 공군은 적의 보급로를 폭격하고 전선 보병전투에서 적진을 공격하는 이른바 대지 공격이 주요 업무였다. 우리 조종사들은 용감하였고 혁혁한 전공을 기록하게 되었다. 일본 '소비'(일본소년비행학교) 출신이 간부를 이루고 있었고 몇 달 뒤부터는 공사 1기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출격하는 때 시간마다 전투기에 오르는 그 자리(flight line)까지 동행하였다. 출격은 새벽 네 시 반경에

## 작은 창(窓)

나 수 섭 (50 메릴랜드)

시작하여 하루 몇 차례씩 있었다. 우리 조종사들은 차츰 UN 공군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곧 제트 전투기를 받게 되었다. 전선 기지에서 조종사들을 돌보는 동안 한 번은 새벽 출격시 이륙하자마자 폭탄이 모발되어 조종사가 산화한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조종석 canopy 정면 중앙을 적탄이 관통하였으나 무사히 귀환한 예도 있었다. 또 전투피로와 신경증으로 나를 찾아오는 조종사도 여럿 있었다. 나는 일선 비행군의관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무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대구에 있던 공군본부 의무감실로 전속 되었는데 돌이켜 보건데 이 시기야 말로 나의 생애 중에서 절정기였다고 생각된다. 그 당시 의무과는 고 이기혁 선배님의 지휘아래 전 의무감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될지 기약 없는 군복무라 우리들은 욕구불만을 가늘 길이 없었다. 우리 다섯 명의 의무과 장교들은 막걸리를 실컷 마시고 대구 중앙동의 밤길에서 울분을 토하여 땀을 의치며 들기를 몇 번이었던가! 그러던 중 1954년 12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을 때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 군에서 군의관 한 사람을 선발하여 보내는 관비유학생 파견 명령이 내려 왔다. 나는 묘한 인연으로 꿈에서나 그리던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것이다. 그것도 군병원이 아닌 유명한 대학병원 로스앤젤스 카운티 하스피탈(LACGH)로 오게 된 것이다. 1955년 2월 5일 서울을 출발하

는 주로 새로 나온 sports car, beach, boating, major league baseball 이야기 등 우리에게는 전부 생소한 것들이었으니 말이다. 그 틈에 끼어 나는 밤이면 코피를 흘려가며 쉴 사이 없이 공부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바쳐야만 했다. 그런 중에서도 의사이며 미혼인 이유로 나에게 접근해 오는 미국 처녀들의 활달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 녀들은 참으로 재치와 애교가 넘치는 모습으로 데이트를 청해 오는 것이었다. 나 혼자 주말에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예쁜 머플러를 휘날리며 벗진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청하던 우유빛 환색 벽안의 미인 간호사이며 또는 산과에서 아기 분만실에 있는 나의 delivery gown에다 살며시 자기 아파트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가던 미모의 젊은 간호사 등은 그때의 나에게겐 꿈속의 여왕인 듯 하였으니 못이룬 로맨스를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은 1955년 6월 25일 미국에 와서 처음 맞았던 한국전쟁 기념일이었다. 미국사람들은 일년중 6월을 좋아한다.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장미꽃이 피고, 상쾌한 날씨에 또 낮 시간이 가장 긴 시절이니 처녀들은 이 6월에 결혼하기를 선포한다(June Bride). 전쟁의 잔재가 도처에 있고 두고 온 조국의 부모 형제와 폐허화한 국토를 생각하며 슬픔에 젖어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의 사건에 너무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백의 민족의 운명이 저주스럽기만 하였다.

**1958년의 귀국과 가톨릭의대 교수 시절**  
 1955년에 미국에 온 이후 의무감실에 계시던 여러 선배님들의 돌보심과 나의 끈질긴 노력으로 일단 나는 1957년 현역에서 예편되었다. 이제 막 Residency 이년차를 시작하였을 때에 국방부로 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다. 나를 예비역으로 편입시킨 것은 자기들의 사무 착오였다는 것이다. 워싱턴 DC 대사관 주재 무관(이후라 준장, 다음에는 유양수 준장) 명의로 된 즉시 귀국하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적 통보를 수차례 받았다. 모순에 찬 그들의 행정 조치, 그리고 항학열에 불타던 젊은 의학도의 순정을 유린하는 그들의 비정 앞에 나는 말할 수 없는 분노에 떨고 있었다. 종파부적! 국방부장관과 의무국장 앞으로 수차 진정서를 보냈으나 완전히 묵살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실 그 때 멕시코로 일단 출국할 생각으로 스페니쉬 공부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수 많은 역경을 참으며 내가 장남인 우리 8남매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 생각에, 이번 유학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작별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떠난 일을 잊을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귀국길에 올랐다. 항공편으로 즉시 귀국하라 하였으나 나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 기차로 뉴욕을 출발 시애틀에 가서 AKF (American Korean Foundation) 화객선을 타고 25일의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용산에 있던 우리 집에 돌아와 다음 날 국방부에 귀국 신고차 출두하였다. 한 달 늦게 돌아왔으니 처벌 받을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출두하였으나 놀랍게도 담당 직원이 내가 신고하는 용건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순간 나는 '속았구나!' 하였으나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의 (다음면에 계속)



출격 직전의 공군 전투기 앞에서

여 3,400 병상, USCA와 CME 대학 부속 병원인 그곳에 도착하니 한국 군의관 셋을 합하여 총 134명의 Intern이 있었다. 전원 미국의대 졸업생이며 외국 출신이 들어오기는 우리가 처음이었다. 완전히 폐허가 된 한국에서 해태던 우리가 미국에서도 가장 호화관인 로스앤젤스 카운티에서 완전한 의학 지식에다 최신장비를 자랑하는 그들 틈에 내 던져졌으니 보는 것이나 듣는 것 모두는 우리를 압도할 뿐이었다. 나는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졌었는데 너무나도 컸던 문화적 배경과 생활양식의 차이 때문에 그들의 대화에 도저히 끼어 들 수가 없었다. 그들의 화제



# 당신이 있어

-耳順의 아내에게-

김중권(69 대뉴욕)

당신이 시집와서  
나와 함께 한지가  
어언  
37년이 되었소이다.

한결같은 당신은  
갓 시집왔을 때와  
별로 변한게  
없는 것 같은데  
올해로  
당신이 60이 되었소이다.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은  
많은 위안을  
받고 살아왔소이다.  
당신이 있어  
Sweet Home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왔소이다.

당신이 있어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좌절감을 떨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소이다.

당신은  
좋은 시절에는  
말없이 미소짓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더욱 침착해지고  
명랑해져서  
나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소이다.

당신이 있어  
나에게는 없는  
당신의 좋은점들을  
느끼며 배우며  
살아 왔소이다.  
당신이 있어  
나는  
욕심 없고 마음씨 고운  
한 여인을  
사랑하며 살아온  
행운아였소이다.

이제  
인생이  
출찍 지나감을  
느낄때가 있지만  
당신이 있어  
아직도  
적지 않는 날들을  
서로 섬기며  
함께 즐길 수 있지 않겠소이다.

훗날에  
혹 저세상이 있어  
가게 되면  
당신이 그리워  
당신 찾아 3만리  
과나리 북집지고  
찾아 헤맬 것이외다.

찾게 되면  
아니 기어이 찾아서  
당신과 함께  
오손도손 재미있게  
또  
한오백년 살 것이외다.

〈전면에서 계속〉 고지식한 성격 때문에 받은 후회스러운 마음은 정말로 가늘 길이 없었다. 공군 의무감실에서는 나를 공군 병원 진료부장에 보직하도록 하였다. 이때 나는 군 복무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니 재도미구실로 제대하였지만 생화학 심봉섭 동창(교수)의 주선으로 가톨릭의대 내과 교수진에 참여하게 되었다. 동기인 심봉섭 교수는 나와 특별한 인연이 맺어진 인물인데 강릉 전투비행단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을 때부터 quonset house인 검사실에서 나무관을 얻어다 자르고 전선들을 연결하여 단백질 전기 영동장치를 자작하여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 연구의 시초였던 것이다. 꾸준히 획기적인 연구를 계속한 그는 1961년에 제1회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1970년에는 록펠러 대학에 초청교수로 왔으며 그는 Electrophoresis and Haptoglobin에서 많은 논문을 Nature와 Science지에 발표한 바 있다. 나는 가톨릭의대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혈액 응고에 관한 임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끝내고 1967년에 TTP(Thrombocytopenia)의 대가인 Tufts University의 Dameshek 교실에 fellow로 초청되었으나 나의 내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 이것을 취소하고 이민으로 도미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의과대학 교수직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바였으니 나로서는 늦은 나이에 큰 용단을 내린 것이다.

### 미국이민

돌이켜보니 내가 처음 왔던 1955년 당시는 미국의 황금시대였던 것 같다. 내 눈에는 지상 천국으로 비추었다. 그때의 미국인들은 모두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뉴욕 시내에서도 자동차를 잠그는 일이 없었다. 도둑이 없었던 시절이다. 그러나 나는 제 1차 유학에서 귀국하여 가톨릭의대에 있었던 10여년 동안 마음 한 쪽에는 미국에 대한 동경이 늘 남아 있었다. 1967년경 한국 사회의 양상은 여러모로 바람직한 것이 못되었다. '하루살이족 사상'이 만연 되어 있었고 정세가 불안정하며 공산군의 재침략을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다. 결국 1969년 1월에 하와이를 거쳐서 뉴저지에 가족과 함께 도착하였다. 나에게는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Residency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버지니아와 미시건의 주 의사 면허를 즉시 획득하였고 5년에 걸친 수련을 마치고 1974년 내과와 종양학(Oncology)의 Practice를 Canton, Ohio에서 시작하였다. 이제는 물질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세계 도처에 최악의 범죄하고 인류는 평화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둠을 가나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나 페락위주의 생활이며 절대자에 대한 신앙은 최진 일로에 있다. 물질적 향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정신없이 달려야 하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인류는 표류하고 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해 들어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가도 가도 끝이 안보이고 여유있게 살아갈 희망은 보이지 않으니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오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보다 더 화려한 삶을 꿈꾸며 들어올을 보고 있다. 해방된지 6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도 국토가 남 북으로 갈라져 있으니 어떻게 진정으로 정상적인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기형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45년 해방 되던 해 나는 평양에서 공산당의 공포 정치에 놀려 펴고 있을 때 그 곳에 와 있던 미국 연락장교단이 지나갈 때 마다 차에 꽃힌 심조기를 보면서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던가. 미국 시민이 된지도 오래 되었건만 지금도 나는 성조기를 보면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이제 미국시민이 되어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이민의 공과를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태어난 고향에서 순탄하게 자라고 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또 당연한 일이겠으나 왜인지 미국에 귀화한 것을 후회해 본 일은 없다. 국민으로서 할 의무는 이미 다 하였으니 군 복무는 충분히 하였고 후진을 양성 하는데도 본분을 다 하였다. 어려서 놀던 내 고향 땅을 아직도 마음 놓고 밟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환멸을 느낀다.

### 요즈음 대한민국 모습을 보며

사람은 가정과 학교에서 바르고 마땅한 인성교육과 전문 교육을 받아 교양을 갖추어야 된다. 부를 축적하고 이득을 보는 학교 졸업장을 가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부유해 졌다 해도 국민 각자는 교양을 갖추고 민도의 소제를 밝혀야 하는 법이다. 민도(civility)라는 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사람의 봉사를 부지런히 실행하는 데에서 풍겨지는 향기이다. 1988년 올림픽 때 우리 전 가족이 모국을 방문하였었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한국인들 사이에 반미 감정이 팽배하여 있었고 심지어 소련과 미국과의 축구 경기에서 놀랍게도 미국을 제껴놓고 소련을 응원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것도 소련 전투기가 사할린 가까이에서 KAL 여객기를 격추한 만행이 있는지 몇 달도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으니 감정에 휩쓸리기를 예사로 하는 한국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바 있었다. 붉은 마수의 침략으로부터 수 만명 젊은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 대한민국을 방위해 준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국이 자기네의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거액의 금액을 써가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망상에 잠혀있는 것인가. 강대국치고 그 어느 나라가 진정으로 주변에 있는 약소국을 돌봐준 일이 인류역사에서 언제 있었는가. 감사할 일에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민도의 표현이다. 이제 56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전쟁 기념일 6. 25가 돌아온다. 지금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에 올랐으나 이혼과 인공 유산율은 세계 제 1위를 치대고 있다. 말로만 부르짖는 남북통일은 아직도 서광조차 보이지 않는다. 무고한 이북 동포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며 온 국민을 아사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자기네 독재 공산체제를 사수하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우리 백의민족은 한결같이 조국 분단이 종식되기를 몽매간에 갈망하고 있다. 가슴을 열고 서로 손잡는 선의의 동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희생 위에 원자 무기를 내세워 세계인류를 위협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강탈하여 집권자의 호화관 생존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유일의 반민족적 원흉임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가? 진정으로 같은 동포라면 어찌 그럴수가 있을까. 백의민족으로서의 양심의 소제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들이 아닌가. 한심할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직 사회학 교수라는 자를 비롯 어떤 젊은 지식층에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도발하였고 석 달이면 끝났을 조국의 해방 전쟁을 미국이 방해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어쩌면 북쪽 공산당의 귀에 익은 선전을 맹신한다는 말인가? 이런 민족 반역자들을 현 한국정부는 두둔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조성되기에 이르렀을까 나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울대학병원 제 4내과 의국원으로 시작하여 미국에 와서 내과전문의로서 하던 모든 일을 끝내기까지 총 48년에 걸친 세월을 보내고 지금 메릴랜드에 이르렀다.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대학

병원 본관 지하실의 어떤 '작은窩'를 통하여 직접 보며 체험하였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많은 고난 끝에 이제는 미국의 광활한 대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모든 것을 '큰窩'를 통하여 내다보게 되었으니 마음은 후련하다. 한국에서 일하던 때에는 어디를 가나 최연소층에 들었는데 뒤늦게 미국에 와서는 가는 곳 마다 까마득하게 젊은 동료들 틈에 끼어 다녔으니 모든 것은 오르막길의 투쟁이었음이 사실이다. 이 자리에서 바라 보니 갈 길은 멀고 남은 이미 저물어 가는 이제 'Time is money'가 아니라 'Time is more precious than gold'라 외치며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미루어온 일들이 산적되어 있으니 무엇보다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쫓기는 돈우가 되지 말라, 나가 싸우는 용사가 되라'는 시구를 읊어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서두르지 말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스스로 타이르며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 하루를 굳건한 자세로 온전하게 살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나는 우리의 신앙공동체에서 의학적 봉사에 바쁘게 지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고 있거나 또 언어 소통이 안되어 속수무책이요 때로는 어떤 의사를 찾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이 허다하며 그 외에도 현대 의학적 계통과 교육이 질실히 요청되는 상태이다. 특히 마음 아픈 일은 젊은 나이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 육체적 심적 고통으로 결국은 질병을 얻고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비극적 결과에 이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고 있다. 나는 은퇴하기 조금 전까지 일반 내과와 oncology(종양학) 전문의로서 공부를 계속하여 왔던 덕분에 이 분야에서 최신 지식을 유지하여 왔고 이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 끝머리에

나는 서울에서 하여왔던 의과대학 내과 교수 생활을 오래도록 계속하고 싶었으나 당시의 여건들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아 늦은 나이에 가족을 거느리고 미국에 왔으니 가족의 장래를 위하여 부득이 개업 전선에 나서야만 했다. 돌이켜 보면 미련이 남은 연구생활이지만 인간으로서 후회는 없다. 나는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유일한 장점인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쉽게 바랄 수 없는 목표까지도 달성하였다 고 자부한다. 인간 성숙의 여정이 본래 참담한 것 이기에 그 길을 달리면서 내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을까? 인간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걸어야 되는 'unique path'(누구도 같은 수 없는)가 있는 것이다. 선택의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결과는 오직 절대자의 뜻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일에도 그에 합당한 때가 있으며 모든 면에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 겸허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걸어온 인생 순례의 여정에서 갖가지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있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이 시점에서 나는 나의 두 아들과 하나인 딸이 각자 가진바 재능을 다하여 능률히 성장하고 유연한 발전을 이루며 이웃을 위한 봉사에도 공헌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말아들은 CFA (Charter Financial Analyst), MBA로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경제경영학자 자리에, 작은아들은 MD, Ph.D. Emory University Neurology의 Alzheimer Research의 Principal Investigator로 일하고 있으니 부디 나의 바톤을 이어 받아 못 다 이룬 나의 꿈까지 합하여 유감없이 성취하여 주기를 바라며 기도드린다.



紙上法醫

# 칼로 보복

노 용 면(55 대뉴욕)

어느 날 아침 벌거벗은 남자의 시체가 그의 아파트 방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온몸이 칼에 찔린 상처 투성이었고, 입에는 페퍼타일이 가득 쑤셔 넣어져 있었다. 방안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보니, 그가 죽기 전이나 죽을 때에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독신 생활을 하는 회사 사무원인데,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속히 알 수 없었다. 그의 지갑과 귀중품들이 방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강도 행위는 아닌 듯 했다.

그의 사인은 심장 자창(stab wounds of heart)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왼쪽 가슴에 찔린 상처가 밖에서는 하나인데, 속에 들어가서는 그 끝 부분이 여러 분지로 갈라져 있었고, 그 가운데 몇 개가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후 칼끝을 여기저기로 휘저었던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소견은 자살 예에서는 볼 수가 없다. 자살을 하려고 자신을 찌르는 경우에는, 가슴에 아주 얇은 상처가 여러 개 있고, 그들 곁에 깊은 상처가 하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얇은 상처들은 치명상을 이루기 전에 깊이 찌를까 말까 하면서 주저하다가 만든 소위 주저흔(hesitation mark)이다.

오른쪽 손목 새끼손가락 쪽에 깊이 찔린 상처가 하나 있었다. 이것은 칼을 휘두르는 가해자에게 저항하다가 받은 상처였다. 이것을 방어흔(defense mark)이라 한다. 자살을 하려고 손목을 자르

는 경우에는 그 모양이 많이 다르다. 자살을 시도할 때는 손목의 손바닥 쪽에서 상처들을 본다. 오른손잡이에서는 왼쪽 손목에, 그리고 왼손잡이에서는 오른쪽 손목에서 상처들을 본다. 이럴 때, 상처들이 여러개 평행으로 달리고 있음을 흔히 본다. 이것 역시 주저흔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는 대개가 치명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치명적인 혈관의 위치를 모르기에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는 그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증거요, 사인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진짜 사인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찾아보아야 한다.

언젠가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살던 가난한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밤중에 잠이 깨어, 그가 이번에는 위스키를 잔뜩 마시고 침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가 또 잠에서 깨었다. 그가 이번에는 면도 칼을 꺼내어 자기 손목을 잘랐는데 너무 아파서 계속 할 수가 없었다. 그가 천정밀을 달리는 캐스 파이프를 쳐다 보더니, 거기에서 자기 머리를 받았다. 그리고는 그만 지쳐서 방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파이프가 깨어져서 그는 캐스 흡입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과실사가 된 셈이다.

문제의 케이스에서 온몸에 자창이 무수히 많았지만, 속으로 깊이 들어간 상처는 네개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계속 칼질한 자창들 같았다. 네 개의 깊은 자창은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모양과 방향이 다양했다. 이들 나머지는 피해자가 죽은 다음에 복수심으로 한 행위인 듯 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그은 상처는 가해자의 깊은 중요심의 발로로 생겼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창 예에서, 상처의 모양과 크기만을 보고 범죄에서 사용된 흉기의 모양을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똑같은 칼로 여러가지 모양과 깊이의 상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상처의 모양을 보고는 칼의 길이나 넓이를 운운하는 경솔한 '법의 의사'가 가끔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유명한 오 제이 심슨 예(O. J. Simpson case)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난 흑인 운동 선수였던 심슨씨의 아내와 식당에서 일하던 젊은이(플다가 백인)가 칼에 찔려 사망한 채 길가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현장을 조사한 법의 의사가 시체에 있는 상처들이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음을 보고, 신문 기자들에게 발표하기를 "이 케이스에서 하나 이상의 무기가 사용된 것 같다. 따라서 살인범이 둘 인 것 같다." 라고 했다. 그러자 그의 의견을 발표하는 뉴스 기자가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기사를 본 사건 담당 검사가, 법의 의사의 견해에 대해 몹시 당황해하던 나머지 뉴욕에 있는 나의 도움을 청해왔다. 내가 그에게 칼 하나로도 여러 모양의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와 이러한 사실을 도면으로 설명하는 나의 강의 자료들을 보내 주었다. 검사가 끝내 그 법의 의사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법의 수사서에서 상처의 모양과 그 분포상(pattern of injury)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지나는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면서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재판에서 법의 의사에게 흔히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가해자가 휘두른 칼의 힘이 얼마나 컸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다. 범인이 어떻게 횡포를 부렸는지를 배심원들에게 들려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상처의 모양만 가지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자세로 있었으며,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드러누어 잡히는 사람을 찔러 5 cm의 자창을 만드는 힘이면,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10 cm의 자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창의 모양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힘이 합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준다.

문제의 케이스에서 경찰이 범인을 찾으려고 여러 곳에 알아보았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사고가 난지 이틀 후 피해자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검찰에 나타나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다. 그들의 질투가 이상 애인들간의 질투에 못지 않은 듯 했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Video Tape at the Library of the Office of District Attorney, Bronx County, NY., Gunshot and Stab Wounds (45 minutes) 1979.  
 2. Yong-Myun Rho: Murder or Suicide. Carlton Press Corp. 1996.  
 3. 지제근, 송계용, 노용면: 병리학 원색도보, 고려의학 1998.

러시아의 작곡가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는 세인트 피터즈버그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음악 공부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천재적인 기질을 보여주었으며 모스크바 음악원도 우등으로 졸업했다.

1897년 야심작으로 발표한 1교향곡 제1번이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 초연되었을 때 엄청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청중의 수준이 그의 창조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도 있지만 당시 이 곡을 지휘하던 작곡가 글라우노프가 엉망으로 술에 취해 연주를 망쳤던 이유도 있었다. 청중들의 야유와 평론가들로부터 혹독한 비평을 받은 라흐마니노프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들어갔다.

1898년 런던에서 지휘와 연주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는 우울증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가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에는 전보다 더 악화된 정신상태를 보였다. 그는 3년 간 전혀 작곡에 손을 댈 수 없었다. 그가 경험한 '창작마비'였던 것이다. 그는 한 정신과 의사의 혁신적인 치료로 회복되어 1900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완성시켰다. 지금도 그의 음악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가장 사랑 받는 작품이다. 그는 이 곡을 자신을 치료해 준 정신과 의사에게 증명했다.

한편 그는 젊어서부터 과음을 했는데 1교향곡 제1번에 쏟아진 비난에 너무 민감해져서 음주가 크게 늘어난 결과 우울증이 악화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나친 음주가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울증이 심해서 자기 치료의 방법으로 음주가 증가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가 작곡가로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성공시켰을 무렵 과음하던 습관도 고쳤다고 한다.

알반 베르그(Alban Berg, 1885-1935)는

## 작곡가의 창작마비 (2)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아놀드 쾨베르그, 안톤 웨베른과 함께 '제2대 비엔나 스쿨'을 형성해서 무조음악 같은 현대음악을 시도해 보았던 작곡가다.

그는 1925년에 완성시킨 범사 [보체] (Wozzeck)이란 오페라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 오페라를 일차 세계대전 중에 구상했었다. 1925년 베를린에서 초연되었을 당시는 문화계에서는 프로이트와 카프카 같은 새로운 사조가 활약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치스가 독일에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일치한다.

그는 이 오페라에서 전통적인 멜로디나 하모니를 파괴하고 혁신적인 방식을 시도했다. 그래도 1936년까지 이 오페라는 전세계 20개 도시에서 166번이나 공연되었다. 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는 1934년에 러시아 출신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루이스 크레즈너의 의뢰를 받아 작곡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그는 '작곡가의 창작마비(Composer's Block)' 상태에 있었다. 자신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반해 고국인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를 명망있는 작곡가로 인정해 주지 않아 크게 낙망해 있던 중이었다.

오선지 앞에 장시간 앉아 있어도 아무런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장애를 극복해 보려고 그는 두 번째 오페라인 [룰루](Lulu)에 매달려서 가진 예를 다 쓰고 있었다. 그런데 마농 그로피우스란 18세의 소녀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인해 그는 창작마비에서 벗어났다. 마농은 당시 유명한 건축가인 발터 그로피우스와 구스타프

정 유 석(64 샌프란시스코)

말리의 미망인이었던 알바 말러 사이에서 태어난 처녀로 베르그는 그녀를 무척 사랑해서 항상 '천사'라고 불렀다. 그녀의 뜻하지 않은 사망 소식을 들은 그는 창조력이 솟아나 짧은 시기에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25분간이 소요되는 이 작품은 두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악장마다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악장 후반에 베르그는 마농 그로피우스의 모습을 연상하게끔 독일 민요를 작품안에 삽입했다. 제2악장은 '재난'과 '구원'이란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구원'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장면이다. 늙은 시몬이 예수의 탄생을 본 후 "나는 이제 죽어도 충분합니다" (Ich habe genug)란 칸타타 82번을 변형시켰다. 마농의 죽음에 대해 사후 안식을 바라는 일종의 진혼곡으로 만든 셈이다.

이 교향곡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1935년 그는 발에 쓰여 발생한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 인해 사망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올린 콘체르토]는 작곡가 자신을 위한 진혼곡까지 된 셈이다.

핀란드의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1925)는 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핀란드어](Finlandia)를 작곡하여 당시 러시아의 압제를 받고있던 핀란드 국민들을 고무시켰다. 이 음악과 작곡가에 대한 명성이 너무 높아져서 한동안 러시아 당국은 이 음악의 연주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마침내 핀란드가 독립하자 정부는 그에게 평생 자유를

계 작곡에 전념하도록 연금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7개의 교향곡과 여러 편의 교향시를 작곡했다. 그런데 시벨리우스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점차 심해졌다. 결국 그는 1929년에 작곡활동을 중지하고 말았다. '작곡가의 창작마비'가 발생한 것이다. 그의 자아비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랄해졌다.

그는 92세까지 장수했지만 이 작곡가가 노년기에 들어 창작마비를 초래한 이유는 지나친 음주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음주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는 자신을 더욱 심하게 비판했다.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어보아도 다른 작곡가들의 것에 비해 거칠고 우울한 기분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현대 작곡가인 허버트 하웰즈(Herbert Howells, 1892-1983)는 엘가, 월튼, 본 윌리엄스의 계통을 잇는 영국 작곡가다.

그는 1925년부터 거의 10년 간에 걸쳐 '창작마비'로 인해 작곡 활동을 중단했다.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1930년대에 마비에서 벗어나면서 그는 전적으로 종교음악 작곡에 전념하여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유명한 합창곡들을 남겼다.

### 바로 잡습니다

시계탑 33권2호(2006년 4월 15일 발행) 11면에 게재된 김재정(60)동문의 글 '생각' 중 출판사의 실수로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 텍사스 대학 hematology fellowship 로 도미하였던 관계로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마칠 무렵에 — 틀

— 텍사스 대학 hematology fellowship 로 미국에서 intern 생활을 하지 않았다. intern 생활은 모교 서울의과대학병원에서 마쳤다. 인턴생활을 마칠 무렵에 — 로 정정합니다.



금년 78회 Academy Award에 가장 우수한 기록영화는 Penguin, 가장 우수 영화 상은 Crash였다. 오스카 나이트에서 우리 부부가 선정한 것이 안될때면 며칠동안 서로 투덜대고 불만을 계속하는데, 그예로서 Robert Deniro가 주연한 Casino, Martin Scorsese가 감독한 New York Gang, Robert Duval이 주연한 Apostle 그리고 Magnalia 등등 훌륭한 영화들은 오스카 멤버들에 의해 선정되지 못하였다.

Crash가 개봉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아주 예리하게 다룬 영화라고 평했다. 으며 이번 오스카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 작년에 Million dollar baby(best movie)의 각본을 쓴 Paul Haggis가 이번에 글도 쓰고 감독도 하여 6개 부문에 선정됨과 동시에 최우수상 영화로 선정되었다. 오스카는 실상 6천명 이상이 되는 회원에 의해 결정되는데 오스카 회원이 되려면 우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아카데미 어워드는 1929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신문지상에 광고되었고 그 후로는 방송으로 들게 되다가 TV로 올라온지는 1953년 이후이다. 그리고 사회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은 18회에 걸쳐 Bob Hope이고 다음은 Billy Crystal이다.

Oscar Statuette는 기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며 아래는 Filner Roll이 받치고 있는 것인데 높이는 13.5인치 무게는 8.5 파운드 이다. 전에는 bronze에다 금 도금을 하였는데 지금은 britannium(매끄럽고 부드럽다고 함)에다 금 도금을 입힌것인데 시카고 있는 Owen and Company에서 만들고 있다. 이 회사는 award만 특별히 만드는 회사로 Oscar Statuette 하나 만드는데 12명이 20시간 걸린다고 한다.

영화의 내용인즉, 미국사회의 인종적 편견을 여러면으로 다룬 것이다. 백인층의 사회, 흑인을 보면 섬짓하는 잘못된 선입감, 라티노들의 사고방식, 한국여인의 무리한 행동, 한국 남자의 돈만 챙기는 태도, 성질이 사나운 이란 사람의 영어장벽에서 일어나는 일, 흑인은 히스패닉이라도 백인하고 살고픈 갈망, 경찰과 범인의 관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인종적 편견에서 일어나는 것 들이다.

미국이 melting pot이라 하여 평등을 부르짖으나 사회 뒷면에 흐르는 계급이 정해져 있어 계급 차별, 인종 차별로 사회가 움직이는 것을 신랄하게 분석 수준급의 잘된 영화로 인정받았다. 이 나라는 인종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영화의 진가를 충분히 발휘하였다.

**생활의 지혜 - 현대를 살아가는 격언**

- 클럽버스가 행복하였던 것은 그가 아메리카를 발견하였을 때가 아니고, 그것을 발견하려하고 있을 때였다. 행복은 생활의 끊임없고 영원한 탐구인 것이지, 결코 발견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도스토예프스키)
- 행복의 비결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제임즈 바리)
- 사람은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료한다. (칼 메닝거)
- 사람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알프레드 로드 테니스)
- 즐기며 행하고, 행한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괴테)
- 한평생의 일을 찾은 사람은 다른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 (카라일)
-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소(미용실)에 가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달 동안 행복하려면 혼인을 하라. 일년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한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도록 하여라. (서양의 격언)
- 행복은 사라진 다음에 그 빛을 발한다 (영국의 격언)
- 행복한 가정의 식구의 얼굴은 서로 닮아있으나, 불행한 가정의 식구의 얼굴은 누구나 다 서로 다르다. (톨스토이)
- 그대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대는 울었고, 그대 주위 사람 들은 기뻐하였노라.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대 주위 사람들은 울고, 그대만은 미소지을 수 있도록 할지이다. (인도의 격언)
-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몇 년 사느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는 것이다. (오 헨리)
-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는 자는 신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 해 달라고 원하지 않는다. (스피노자)
-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 발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 먼 것이다. (아인슈타인)
- 자기가 그만한 힘이 없으면서도 커다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만하다. 또한 자기 가치를 실제보다 적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굴하다. (아리스토텔레스)

- 선을 행하는데는 노력을 요하지만, 악을 억제하는데는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 (톨스토이)
-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가르친다" (버나드 쇼).
- 혀가 부지런 하면 재앙이 따르고, 발이 부지런 하면 재물이 따른다 (한국의 속담).

**농담 골목**

유태교 회바이(목사) 한 사람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새 시너가 그(교회당)에 취임되어 첫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좀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교단앞에 서자마자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언젠가는 천당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기대했던 대로 설교를 들던 교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 구석에 앉아 있던 젊은이만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혹시 마이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는 마이크 앞에 입을 가까이 하고 "교인 여러분이 언젠가는 천당에 갑니다." 라고 되풀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만은 계속 웃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매가 끝나고 친교시간에 회바이가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당신은 계속 웃고만 있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교회당 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면)

목사가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개 한 마리를 둘러싸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개를 해칠까봐, 목사가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집 잃은 늙은 개입니다. 우리들이 이 불쌍한 개를 갖다 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개를 원하기에 서로 의논한 끝에 제일 거짓말을 잘 하는 아이가 이 개를 갖도록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말하기를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 나는 너의 나이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이 개를 저 목사님이 갖고 가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 (면)

예수를 독실하게 믿는 여자와 종교하곤 거리가 먼 남자가 앞 뒷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해가 떠도 비가 와도 만사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녀의 태도를 구경해 온 옆집 남자가 하루는 과일 한 주머니를 사서 그녀의 문 앞에 놓았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보더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뛰어와서 "그 과일은 내가 갖다놓은 거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느님, 저 사람에게 과일을 갖다 놓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면)

목사가 우체국에 가는 길을 묻자 아이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는 "예의 바른 아이로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테니 내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농담 마세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세)

정신과 병실에 입원을 한 환자가 허니아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의사: 내일 허니아 수술을 할텐데 어느 쪽이지요? 환자: 아니. 의사 선생님이 모르는걸 내가 어찌 알니까 - (이덕승)

어떤 섹시한 젊은 여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술만 마셨다 하면 남자를 밝혀요, 그리고 ..." 환자의 말을 중단한 의사 왈 "잠깐만요, 우리 양주 한병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해 봅시다." - (이덕승)

고사성어의 새로운 해석법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난형나제: 형 노릇하기도 힘들고, 동생노릇하기도 힘들다.  
 유비무환: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무비유환: 비가 안오면 환자가 있다.  
 무비유환: 비가 오건 안오건 환자는 있다가도 없다.  
 동문서답: 동쪽에만 문이 있으니 서쪽이 답답하다.  
 이심전심: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  
 박학다식: 공부도 못하는게 밥만 많이 먹는다.  
 백문이 불여일견: 학자가 백명있어도 개 한마리만 못하다. (학자대신 侏儒로 대응할 수 도 있음. - (석)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